

만남

03

2018

통권 530호



특집 | 공감과 소통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만남의 초점



‘거룩한 공회’의 지체인 중등부 학생들이 ‘죄성 탈출’이라는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가졌다.
주님 몸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심장 박동처럼 ‘부활 생명의 리듬’이 울려나오고 있다.

- 지난 1월 26~28일 영락기도원

만남

2018년 3월호 통권 530호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발행 2018. 3.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영근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 이달의 말씀 02 · 약한 자가 의지할 것 | 김운성
 이철신 위임목사 은퇴 인터뷰 04 · 지난 20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정영근·박선이
 10 · 사역 20년 화보

특집 공감과 소통

- 신학자와 대화 14 · 개혁하는 기독 신앙과 소통하는 성도의 교제 | 안인섭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17 · 하나님이 빚으시는 개혁신앙 | 유재경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20 · 짧은 세대와 소통하기 | 이관형

교 육

- 영락지금 23 · 청년들의 가장 깊은 이야기 | 우대권·목진경·오승현
 26 · 섬김을 배웠던 다시(爹視)-고등부 겨울수련회 | 이유진
 너 괜찮아? 29 · 감정의 교류, 소통의 통로 | 이영미

선 교

- 세계선교 32 ·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 이노하
 국내선교 34 · 영락 선교사역과 함께하는 영락 미디어사역 | 정수진
 36 · 직장인예배를 전문인 선교 전략의 거점으로! | 이의용

교 제

- 문화광장 39 · 3월의 영락영화
 40 · 사순절 십자가 묵상을 깊게하는 선율 | 백정진
 43 · 기독교미술이란 무엇인가? | 이경직
 영락의 울타리 46 · 질그릇에 담긴 주님의 영광 | 박현옥
 49 · 하나님 손에 잡힌 베드로부 | 전의혁

봉 사

- 사랑의 겨자씨 52 · 이웃과 함께… 나눔과 섬김의 실천 | 박진현

표지설명



2월 12일 새로 부임하는
 김운성 목사 환영식 직후
 은퇴하는 이철신 목사가
 함께 한 모습을 담았다.

사진 박홍기 선임기자

- 교회소식 54 · 김운성 목사 부임 환영식 등
 57 · 2018년 신임 부목사 / 목회력

- 58 · 새가족 환영 / 영락역사자료
 야곱의 우물가 59 · 영락화랑: 아름다운 묵상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독자 의견

- 60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약한 자가 의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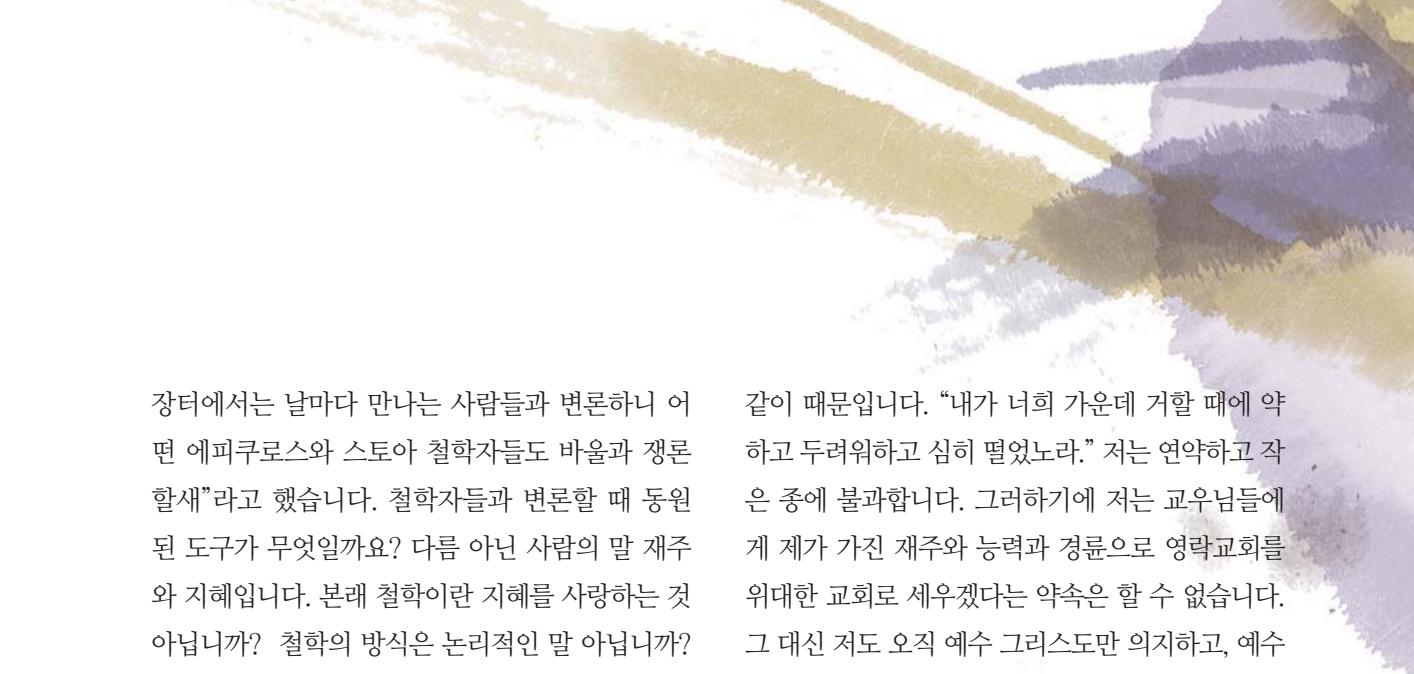
김운성 목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온다는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하셨을 겁니다. 저도 영락교회와 교우님들이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교우님들을, 교우님들은 저를 더 잘 알 아가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이 가르치는 것처럼 성도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앞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교제가 아닌, 주님과 함께 하는 영적 교제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시선을 통해 훈련받지 않았느냐? 난 너를 전후좌우에서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위에서도 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너의 밖을 보지만, 난 네 속까지 보고 있었다. 그러니 너는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내 시선 앞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 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에, 누구 앞에 있든지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영락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주님의 시선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도록 힘쓰겠

습니다. 주님 앞에서 바르면 사람 앞에서도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우님들에게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해 보이겠습니다”라고 자신감 있는 약속을 드리는 대신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고린도교회에 보내게 하신 첫 번째 편지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사람의 말 재주와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고린도에 오기 직전 사역지였던 아테네에서의 경험에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사역한 대부분의 도시들에 교회가 세워진 반면,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께서는 아테네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18절을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 할새”라고 했습니다. 철학자들과 변론할 때 동원된 도구가 무엇일까요? 다른 아닌 사람의 말 재주와 지혜입니다. 본래 철학이란 지혜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철학의 방식은 논리적인 말 아닙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모든 지식에 정통했기에 다양한 철학자들과 충분히 변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사도께서는 “다시는 말 재주와 지혜로 하지 않겠다, 고린도에서는 아테네에서처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말 재주와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사역하길 원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분의 십자가만 의지하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결심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그 십자가로 인해 나타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없이는 기독교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기독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만 있으면, 거기가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숫자가 적은 교회라 하더라도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도 바울처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영락교회에 부임하는 제 마음이 바울의 마음과

같이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저는 연약하고 작은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교우님들에게 제가 가진 재주와 능력과 경륜으로 영락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세우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강단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할 때 크게 격려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락교회가 지난 72년 동안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 정신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영락교회와 교우님들의 신앙이 사람의 말이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에 근거하여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 정신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에게 설득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는 오직 주님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영락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기뻐하게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만남**



지난 20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이철신 위임목사가 2월 25일 은퇴예배를 통해 성역 40년과 영락교회 시무 20년을 마무리한다. 45세 장년의 나이에 영락교회에 부임하여 수많은 사역의 결실을 남기고 영광스러운 은퇴의 자리에 서는 이철신 위임목사가 영락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만남」은 지난 1월 12일 남한산성 영락수련원에서 이 위임목사와 만났다. 정영근 홍보출판부장 장로가 질문을 던졌다.

누구에게나 은퇴의 시기가 있지만 막상 은퇴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부임하실 당시 가졌던 목회철학과 비전에 비추어 지난 20년 목회를 회고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빙 받았을 때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확인했습니다. 기도하며 가졌던 생각은 영락교회가 큰 교회이고, 사실 한국의 첫 대형 교회인데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락교회에 오기 전 한경직 목사님께서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사역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인천제일교회 이기혁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 모두 민족복음화에 헌신하며,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어를 만드셨습니다. 저도 영락교회 목사로서 역시 같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지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의지한 덕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은혜를 받지만, 의지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얻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교회의 목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가운데, 교우들과 공유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아서…(웃음).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연세 들고 편찮아서 교회 예배에 못 오시는 분 심방하는 일입니다. 연초에 1, 2월이면 각 교역자들이 교구별로 리스트를 내놓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 출석하시고 교회 봉사하시다 연세 많이 드시고 편찮아서 교회 너무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 명단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교구마다 한두 분씩 명단 받아서 1년 내내 심방합니다. 목요일 오후에 가는데, 동선이 먼 경우는 한두 닉밖에 못 가요. 가정에 계신 분도 있고 병원에 계신 분도 있는데, 심방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위임목사가 집에 심방 온 적은 처음이라고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저도 굉장히 감사하죠.

가정 - 교회 연계 사역과 민족복음화에 힘써

20년간 목회하시면서 가장 힘썼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그 사역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교회 안을 위한 사역과 교회 밖을 위한 사역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안의 사역으로는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연계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와서 교육부 교회학교를 다 다녀봤습니다. 우리는 중·고등부까지 거의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현실을 보고 우리에게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 신앙교육 시킬 수 있도록 자료도 만들고, 부모님이 교육 주체가 되는 게 좋겠다’하고 가정-교회 연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으나 꾸준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밖을 향한 사역은 민족복음화에 집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학원선교, 군 선교, 복지선교에 강합니다. 학원선교, 군 선교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경천애인이 기본 신학적인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건실하게 의롭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웃 사랑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세상을 향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경천애인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숫자만 늘리자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맑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경천애인의 기본 정신입니다.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목사님이 오셔서 북한 선교 관련 사역을 확대하셨지요. 북한선교센터가 북한선교부로 확대되고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선교학교가 시작되어 24기를 배출했고 지금은 복음통일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복음으로 민족정신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으로 나라를 살리지만 기독교인은 복음으로 나라를 살립니

다. 민족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 민족의 과제가 북한 선교입니다. 복음통일은 민족복음화의 연장 선상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세상을 향한 사명은 민족복음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990-91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동독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북한이 무너질 차례인데 내가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라는 마음에 도서관을 다 찾아봤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대학에서 미국 전체 도서관 검색이 다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선교 단체의 자료를 다 봤는데 남태평양 조그만 섬 자료는 있어도 북한 것은 없었어요. ‘아, 북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 교회가 강하니까 한국 교회가 할 일이라고 맡기신 거다. 우리가 안 하면 큰 재앙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의 사명입니다. 더구나 우리 영락교회는 태생부터 북한 선교에 대해 사명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은퇴 후 북한 선교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십니까?

연합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로부터 자유롭고 교회 책임은 벗으니까, 많은 목사님과 교회를 ‘의식화 교육’ 시켜서 어떻게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할까 연합하는 데 힘쓰려 합니다. 그래서 우선 ‘통일지도자훈련센터’를 만들어서 각 교단 중진 목사님들이 참여하는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와 소망교회, 종교교회, 은평성결교회, 부산 수영로교회가 함께 시작했습니다. 각 교단 40여 개 교회가 모였습니다. 지방 목사님들과 포럼도 하고 생각을 모으고 연합할 것입니다. 교단 간 연합은 현재 진행중이며 지역 간 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신 위임목사 주요 활동(1997~2017)

1997년

12월 이철신(李哲信) 목사 위임목사로 부임

1998년

1월 18일 위임식
4월 19일 사랑부 창립예배
5월 국제예배 창립(담당 빌 메이저스 목사)
21일 송실태 한경직기념관 현당예배
6월 북한선교센터 빌족
9월 1일 제1기 전도폭발훈련
9월 제1기 북한선교학교
12월 50주년기념관 현당예배

1999년

4월 4일 젊은이 예배 시작(베다니홀)
4월 14일 전산시스템 Windows NT로 교체,
「교회종합정보시스템」구축
5월 2일~6월 27일 제1기 자원봉사학교 개설
10월 영락교회 중장기 계획서 발간

2000년

4월 24일 한경직 원로목사 장례예배 집례
10월 3일 교회 창립 55주년 기념 체육한마당/
잠실실내체육관
11월 6일 영락교회 창립 55주년 기념음악회/
영락교회 베다니홀

2001년

6월 영락기도원 개축 완공
8월 7~9월 11일 제1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12월 29일 한경직 목사 사이버기념관 개관

2002년

2월 25일~3월 2일 새학기 맞이 특별사벽기도회
본당에서 첫 개최
9월 24일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구성
10월 한경직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
10월 16~18일 영락세계성가합창제

2003년

CebC(어린이영어성경공부반) 개설
6월 22일 샘물의 집 신축현당예배

우리 교회 당회와 시스템 혁신으로 새로워지길

조기은퇴를 선언하셔서 성도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왜 조기은퇴를 생각하셨습니까? 본 교회의 제도혁신을 강조하셨는데, 우리 교회의 성숙을 위해 혁신, 간신히 해야 할 점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하면 매너리즘과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새로워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임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사실인데 조금 더 많은 효과를 내려면 당회와 시스템 등의 혁신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당회에 혁신위원회 구성을 청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우 민주적이고 행정과 재정이 투명합니다만, 조금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면 좋겠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 많이 수고하시는 데, 우리 교회는 젊은이와 여성들이 더 많이 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민주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지도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혁신됩니다. 지도자가 섬기면 혁신되지만 지도자가 지배하면 혁신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등 지도역할을 맡은 분들이 더 잘 섬기는 자세로 실천하시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락교회는 한국사회와 한국 교회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20년간 사역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지닌 책임이 무엇이라고 경험하셨습니까?

한국 교회는 교인 수나 재정이 교회의 생존과 관련된 곳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생존하기 위해, 또 몇몇 교회는 탐욕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바른 교회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락교회는 대형 교회로서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교회를 구현해야 하는 교회이고 또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의 다른 교회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라면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천해온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목사님 내외분께서 손잡고 남산 길 산책하는 것을 보고 반갑고 기뻤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믿음의 가정 꾸려나가는 게 쉽지 않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부부와 가정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하하. 제가 제3여전도회, 제4여전도회 분들께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가 신앙생활하기 제일 힘들 나이라고요. 이 시기에는 첫째, 부부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로 주도권 싸움, 기싸움을 합니다. 부부 관계, 아이의 성장 등 모든 면에서 가정이 아직 안정이 안 되고 형성되어갈 시기여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신앙생활도 힘든 시기인데, 오직 하나의 비결은 가정예배밖에 없습니다. 가정예배 교재를 보면 주 1회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빠뜨리지 않고 시간을 미리 정하여 예배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아빠 위주도 아니고 엄마 위주도 아니고 아이들 비위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 이것이 기준입니다. 아빠도 엄마도 성경대로 못 했으면 잘못했다는 거죠. ‘성경대로’는 가정이 믿음 위에 서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와 기도, 섬김으로 살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특별히 계획하고 계시는 사역은 있습니까?

(웃음) 예배를 잘 드릴 것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위임 목사가 자리를 비운다든가, 특별 요청이 있는 경우 말고는 설교는 안 하겠다고 은퇴준비위원회에 말씀드려놨습니다. 은퇴 후 제게 제일 중요한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그동안은 활동하는 ‘doing’의 삶이었는데, 은퇴하면 기도하면서 존재하는 ‘being’으로 살고자

합니다. 교회 안 사역은 기도이고요, 교회 밖 사역은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몇 해 전부터 시작한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 프로그램을 계속하겠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잘 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일 밤 들어와서 금요일 오후까지, 휴대폰 반납하고 5박6일 동안 하루 3번 말씀 묵상, 오전·오후 성서와 영성 강의, 저녁 예배와 성찬으로 내면을 신앙적으로 견고히 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수련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통일 사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되면 그 날이라도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교회를 맡고 있을 때는 이런 저런 정리를 해야 되니까 당장 가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웃음) 은퇴목사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생활은 힘들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로 농촌 교회를 했는데,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북한으로 가는 것은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획하셨던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목회자 사역을 믿어주고 따라주고 섬겨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 죄송한 것은 한 분 한 분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영락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지금까지 신앙의 선배님들이 잘 세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사명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에 있는 교회를 가장 잘 구현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잘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가 기대하는 ‘교회는 저런 교회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 가는 것은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지금까지처럼 잘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대담 정영근 부장장로 정리 박선이 선임 편집위원 사진 김태영·이상현 객원기자

2004년

- 9월 22일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재개관
12월 교회창립 60주년기념사업위원회발족

2005년

- 4월 13일 한경직목사기념전시관 개관
7월 5일 영락노인복지센터 내 영락주간보호센터 개원
10월 9일 교회창립 60주년 기념말씀집회
29일 교회창립 6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2006년

- 러시아어 예배 창립
1월 19일 사학수호 한국교회 목회자 비상기도회
8월 네팔예배 창립
8월 15~19일 제1회 통일신학 컨퍼런스 영국 요크대·
영락교회 공동주최 개막예배
<평화로 가는 길> 설교
8월 18일 존로스 선교사 기념동판 개막
(에든버러 메이필드 셀즈버리 교회내)
10월 10일 한경직 목사 동상 제막 (송실대 경내)
12월 15일 미국 Biola University(바이올라대)
명예 신학박사
21일 사학법 개정을 위한 기도회식발
(이수영 새문안교회, 서경석 조선족교회
목사 등 35명)
방과후 대안학교 개설

2007년

- 10월 14~17일 2007 레노바레 영성부흥 국제컨퍼런스
11월 27일 김창화집사 순교기념비 제막

2008년

- 12월 30일 이철신 목사 성역 30년 설교집
『거룩한 목마름』 출판 감사예배/선교관

2009년

- 1월 4~15일 교육혁신 신사역 프로젝트 「다음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 캠페인 전개
4월 6~11일 미디어금식 TV 고기운동 전개
5월 11~14일 Next Wave Convention
『다음세대, 미래 목회의 대안』 개최

2010년

- 10월 한경직목사 추모 10주년
국제평화·화해 컨퍼런스



▲ 1997년 12월 7일
이철신 신임목사와 원로-은퇴장로님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철신 목사 영락교회 사역 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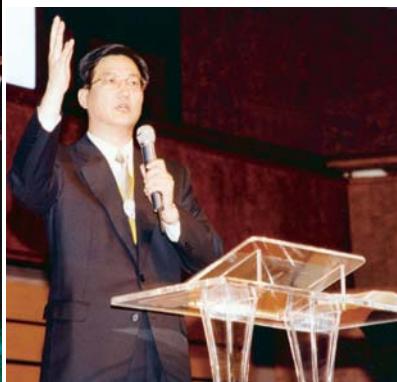
▼ 1998년 4월 10일
한경직 목사님과 벨엘기도실 개관행사를 가졌다



1998년 9월 27일▶
제1기 북한선교학교 개강



▼ 1999년 예배 후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1999년 4월 4일
젊은이예배 베다니홀에서 첫 예배



▲ 1999년 7월 8일 영락기도원 개축기공 야외 예배를 인도했다



▲ 2000년 10월 3일 교회창립 55주년 기념 체육대회

▼ 2001년 4월 23일
강원도 속초시 추양하우스에서 한경직목사 1주기 예배와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



2010년

12월 1일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준공 및 개원

2011년

2월 23일 월드비전 4대 이사장 취임

3월 제1회 말씀묵상수련회(사순절 기간)

5월 10일 방글라데시 치타공 '영락 믿음병원' 개원

9월 17일 NK국제학교 개교 첫 입학예배

2011년

10월 20일 서울노회 노회장 취임

2012년

2월 25일 영락청년오케스트라 창단

3~4월, 9~10월 주말테마학교 & 기독학부모교실 개설

6월 20일 영락교회 역사자료실 개관

2013년

2월 11일 '사랑 더하기 밥나누기' 활동

3월 8일 세계기도일예배 주관

3월 교회창립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발족

4월 15일 아프리카 짐비아 '영락기독학교' 설립, 기공식

5월 21~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선교리더십 컨퍼런스' 설교

5~6월 '국제북한선교학교 (International Mission School for North Korea)' 시작

6월 9일 싱가포르한인교회 현당예배(횡장선 선교사)

6월 모바일 홈페이지에 예배설교 생방송,
다시보기 구현

8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영성생활관내
한경직기념도서실 개관

9월 5일 송파종합사회복지관에
'밥피어스&한경직기념홀' 개관

9월 5일~11월 16일 제1기 통일사역자 훈련
'소원(So One)'

11월 10~12일 아프리카 짐비아 월드비전 총회연설

2014년

3월~12월 남한산성 영락수련원 설립 및 리모델링 공사

3월 20~22일 LA영락교회에서 한인교회 대상 최초로
통일사역자 훈련 '소원(So One)' 개최

4월 「한경직 목사 추모 14주기 자료전집」 발간

5월 교회 홈페이지에 「만남」 e-book 게재

10월 19일 영락중국어예배 창립예배

2003



2003년 6월 5일▶

교역자 축구대회에서 온누리 교회 교역자팀과 2대2 무승부. 뒷줄 중앙 가슴에 <100>번 이철신 목사와 오른쪽 하용조 목사가 함께 했다

2007



▲ 2007년 12월 21일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건 때 한국 교회 희망연대 봉사단과 함께 기름 닦는 봉사에 나섰다

2009



▲ 2009년 6월 6일 남선교회 체육대회(영락여자신학원)

▼ 2010년 11월 1일

한경직목사 추모10주기 국제평화·화해 컨퍼런스 기간에 판문점 JSA 방문



2010

2011



▲ 2011년 8월 17일 아프리카의 월드비전 사업장을 방문했다



◀ 2012년 4월 29일
영락사화복지재단 어깨동무
캠페인을 교회 베다니광장에서 펼쳤다



▲ 2014년 1월 1일 신년예배를 드리고
<젊은 세대를 세우는 영락교회>를 표어로 세웠다



▲ 2017년 7월 11일 선교부가 30년간 지원한 대만 루카이어 신구약성경 번역이
완료되어 출판 감사예배를 현지에서 드렸다

2015년

- 1월 남한산성 영락수련원 개원
- 3월 8일 교회창립 70주년 기념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 및 상영
- 5월 12일 장신대 명예신학박사 학위 받아
- 6월 24일 숭실대 100주년 기념 한경직목사기념관 2층에 '기도실' '전시실' 개설
- 8월 9일 '하나님과 함께 한 광복 70주년, 하나님과 함께 한 영락 70주년' 광복주일 기념예배
- 10월 3일 70주년 한마음 잔치(장충체육관)
- 11월 29일 영락작곡가 70곡 현정기념음악회
- 12월 6일 50주년기념관 808호에 청소년 카페 '쉼(SHIM)' 오픈

2016년

- 2월 8일 아프리카 감비아 영락크리스천스쿨 영락어린이 교회 건축 현당예배
- 5월 9~10일 목회자 통일준비포럼에서 강의
- 5월 31일 영락수련원 내 예수님생애 묵상동산 조형물 제막 감사예배
- 6월 영락교회-프린스턴신학교와 인턴십 프로그램 시행
- 7월 10일 '제100회 총회 세계선교사대회' 후원감사예배
- 7월 31일 해브리 재가노인복지센터 개원
- 10월 포이메네스 영성아카데미 개원
- 12월 1일 한경직목사우거처 환경정비공사 착공

2017년

- 2월 12~17일 포이메네스 영성아카데미
'5일 영성수련' 시행
- 3월 13일 국민일보 주제 '인공지능 시대의 영성, 종교개혁 500주년과 현재' 국제포럼 (Refo500)에서 말씀
- 3월 28일~6월 10일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최신 웹기반 업무시스템 구축
- 7월 11일 대만 루카이어 신구약성경 출간 및
하오차장로교회 루카이어 성경출판
감사예배

2018년

- 2월 이철신 목사 은퇴

특집 //

공감과 소통

- 신학자와 대화
개혁하는 기독 신앙과
소통하는 성도의 교제
-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님이 빚으시는 개혁신앙
-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개혁하는 기독 신앙과 소통하는 성도의 교제



안 인섭 교수
충신대학교

오늘날은 소통의 단절로 인한 혼란과 소외로 가득 찬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 계층과 지역, 이익집단 간의 불통은 물론, 이제는 세대와 이성 간의 소통 부재, 그리고 인간과 자연세계와의 소통 단절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모든 사회적 문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제 위험 수위에 임박해 오고 있다고 생각될 정도다.

소통 단절의 시대 현상과 기독교인의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깊은 관계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분명하게 나타난다.

에덴동산의 공동체를 보라.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르시면 응답하는 친밀한 관계였다. 최초의 인간사회였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여 소통하며 신뢰하는 관계였다. 심지어 인간은 자연세계와도 소통하면서 더불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가 깨지고 소통이 단절된 것은 인간세계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다. 죄는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켰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회피하고 숨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 건강한 자아상도 상실하게 되었고 사랑의 공동체였던 인간 사회도 사랑과 믿음이 깨진 소통 부재의 사회가 되었다. 인간과 자연세계와의 교감도 사라졌다.

이런 총체적인 소통 부재와 관계 단절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화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회, 그리고 자연 생태계와의 소통이 철저하게 단절되었던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하나님과 이웃 간에 올바른 소통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중세 천년을 지내오면서 다

시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특히 중세 말부터 종교 개혁에 이르는 시대는 신앙문제, 개혁, 그리고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서로 뒤엉켜서 훌러갔던 시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세 말의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소통에 장애물이 생겼다. 성상 숭배와 성물 숭배는 물론 교황 제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을 막아버렸다. 사회 경제사적으로 보아도 중세는 단절된 사회였다. 장원 중심으로 분절되어 있었고, 철저하게 영주와 농노로 분리된 신분 사회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모든 단절을 끊어버리고 다시 소통하게 만든 것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것이다. 성경에 근거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이 본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임을 재발견하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변성

하고 새로운 근대 부르주아 계층이 형성되면서 지역과 지역, 계층과 계층이 더욱 소통하게 된 것도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열매였다. 특히 칼빈주의자들은 자신의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성경적인 신앙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국가를 넘어 상호 소통하면서 서유럽에서 동유럽까지 확산할 수 있었다.

종교개혁 사상을 종합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은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1509-1564)이었다. 그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구현하고 있는 바람직한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 요소’를 네 가지로 명확하게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doctrina apostolorum)이고 둘째는 교제(communicatio)이며 셋째는 떡을 떼는 것(fractio panis)과 넷째는 기도(oratio)였다. 여기에서 교제라는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정서적으로 소통한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 이때 사용된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어근은 마계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하는 일(로마서 15:26),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일(고후 8:4),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고후 9:13) 등에서도 각각 사용되고 있다. 결국 진정으로 소통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진리의 터 위에서 가난한 지체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섬기며 영적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오늘로 돌려보자

철저하게 계토(ghetto)화 되고 이기적으로 개인화 된 현대인들은 매우 고독하다. 날마다 뉴스와 인터넷에 넘쳐나는 사회적 문제의 대부분은 소통의 부재에서 생긴 것이 아닐까? 원래 하나의 민족이요 한 국가였던 한반도의 분단과 극도의 긴장과 대립 관계 또한 소통이 절실한 영역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는커녕, 심지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담을 쌓고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역사는 미래의 스승”이라는 격언이 있듯이, 우리는 교회의 역사적 교훈을 깊이 성찰하면서 현대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기독교 공동체는 사도들로부터 면면히 이어오는 성경적 진리의 반석 위에서 영적이고 물질적으로 소통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다.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아내는 제2의 종교개혁적 공동체가 세워질 때 한국 교회는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 안에 팽배하고 있는 불통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분단이라는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소통하는 2018년을 열어갈 것을 기대해 본다. **만남**

하나님이 빛으시는 개혁신앙



유재경 목사
성동·광진교구
예배부, 영성

작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다.

500주년 기념이 말만 부산한 잔치가 되지 않으려면 올해를 다시 개혁하는 첫 걸음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은 내가 주도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그 과정은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개혁의 필요성과 마음을 절감했다면 그 마음으로 일상을 찬찬히 살피고 변화를 향한 걸음을 떼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개혁을 실제화하는 과정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공감과 소통, 그리고 반복이다.

공감과 소통

먼저 공감과 소통이 개혁에 왜 필요할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 사람마다 주장하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진다. 그러다 보면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그대로 두자며 물러서기 쉽다. 그냥 두면 안 되지만 당장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공동체의 변화란 언제나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모두가 개혁에 대한 갈망과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공감과 소통이다. 빌립보서 2장2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라고 말한다. 모두가 공감하여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개혁을 위한 움직임은 허공에 누각을 세우는 것과 다름없게 되고 만다. 그렇다면 무엇을 공감하고 소통해야 하는가?

첫째, 진정한 갈망을 공감해야 한다. 모두 바꾸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말 바꾸고 싶은가? 바뀌면 좋지만 바뀌지 않아도 좋은 것은 아닌가?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어떤 영역은 바꾸고 어떤 영역은 그대로 두고 싶은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은혜스럽다’라는 명분으로 속마음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 ‘은혜스러운’ 것은 진실하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는 것이지 진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갈망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변화를 원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둘째, 행동의 방식을 소통해야 한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 진정한 갈망을 발견했다. 손해와 불편이 있어도 진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런데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다양한 부서와 개인의 소리들을 조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 방식을 고민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사랑으로 들을 수 있고 사랑으로 말할 수 있다. 기도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내와 하나님을 배운다. 인내와 용기와 직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된다.

셋째, 결과의 의탁에 동의해야 한다. 우리는 개혁을 하고 나면 개혁의 결과로 ‘외적인 성장’이나 ‘사람들의 찬사’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비난이나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성장이 없거나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정을 통해 종국에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한다.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 열매를 맺기까지 태풍도 있고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개혁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개혁신앙이 될 수 있다.

반복

두 번째로 진정한 개혁신앙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이다. 개혁은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관습중심의 신앙에서 성경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움직임이다. 그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개혁은 지난하지만 반복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려 가셨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다. 마지막 만찬을 마쳤고 시몬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고한 뒤였고 잡히시기 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고요하기도 어렵고 기도하려고 앓기도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다. 평소에 반복적으로 기도해오시던 습관을 따라서 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 22:39)

위기 속의 다니엘도 마찬가지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 6:10)

개혁하려는 시도와 움직임은 우리에게 불편을 자아내기 마련이다. 이전이 더 나아보일 수도 있다. 개혁이 시작되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몸에 진리의 삶을 축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축적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때 개혁하려는 의도는 개혁의 행동으로 완성되게 된다. 반복이 의지를 행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인생의 열매는 철을 따라 맺어진다. 인생의 계절을 반복적으로 지나가야 한다. 봄을 지나야 순이 돋고 여름을 지나야 무성하며 가을을 지나야 결실이 있고 겨울을 지나야 축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여러 번 다시 봄을 지나서 새 가지가 생기고 여름을 지나 더 튼튼해지고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기를 반복해야 한다. 금세 열매가 맺히는 경우도 있지만, 몇 년이 걸리는 계절의 반복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매일의 시간들을 몸에 반복적으로 새겨갈 때 우리는 인생의 계절들을 지나게 되며 계절(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3)

반복을 통해 계절을 꾸준히 살아가면서 태풍도 홍수도 가뭄도 통과하고 나면 열매를 맺는 이가 노력의 주인인 우리가 아니라 철(계절)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된다. 계절과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 이런 변화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개혁신앙이다. 공감과 소통 그리고 반복을 통해 하나님이 빚으시는 개혁신앙으로 형성되어가는 영락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길 빈다. **만남**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이관형 목사
중구·용산교구
청년부, 젊은이예배

비벨의 단절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네트워크(network)’이다. 현대인의 모든 삶은 서로 연결(link)되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을 위한 도구들이 가장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세계 어디에 가 있어도 연락이 끊지 않는 곳이 없다. 다양한 SNS의 도움으로 우리 개인의 삶이 널리 공유되고,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때로는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삶이 드러나는 폐해나 부작용도 있지만, 최첨단의 소통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세대 간의 단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져 가고 있다. 기성세대들과 다음 세대들 사이에는 이제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같은 직장이나 공동체 속에서도 오히려 소외와 왕따 같은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고, 현대사회도 ‘1인 시대’라는 단절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신의 소통 도구들과 거미줄처럼 연결된 네트워크 시대 속에서도 심각한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단절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죄인인 인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동방의 시날 평지에 모여서 성읍과 탑을 쌓고,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야심을 갖게 되었다(창 11:2-3).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도구는 그들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기 때문(창 11:1)이라고 성경은 설명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결국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창 11:6-9).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바벨의 단절’이라는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하여

교회는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 땅에서는 참 보기 드문 모임이다. 분명히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라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소통’의 문제일 것이고, 그중에서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소통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다. 특히 40세 미만의 젊은 세대가 급속도로 교회공동체를 이탈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만이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해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먼저, 공감적 경청이 필요하다.

대화의 가장 기본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화에서 가장 실망하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이미 할 말을 정해놓고,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적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대놓고 화

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웃지 못 할 이야기이다. 공감적 경청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성세대들은 “과거에는 잘 했는데, 지금은 왜 못 하냐”는 식의 비난조의 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성세대들이 청년 시절을 보낼 때와 지금의 청년 시기는 많이 다르다. 과거의 기성세대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했다면, 지금의 청년들은 내가 갈 수 있는 직장이 있을까를 고민한다. 이들의 상황 이해를 전제하여 대화해야 한다. ‘이해(understanding)’이라는 영어단어가 ‘아래에 (under) 서다(stand)’는 의미가 아닌가? 어른들이 젊은 세대들과 대화할 때, 군림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 서서 공감적 경청을 한다면, 훌륭한 소통의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참여적 문화가 필요하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참여’다. 현대의 모든 미디어는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었다. 방송을 봄 유명인이 독점하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현대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참여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참여적인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 우리 교회 젊은이예배에서도 예배의 참여적인 요소를 강

*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개신교인 숫자가 967만5,761명으로 2005년의 861만6,438명보다 무려 106만 명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40세 이상 개신교인 숫자가 170만 명 정도 증가한 데 반해서, 40세 미만 개신교인의 숫자는 오히려 65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

조하고 있다. 예배의 시작부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부르는 영광송, 예배를 위해 함께하는 중보기도, 함께 부르는 찬양시간, 설교 후에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적용기도, 예배의 마지막에 부르는 결단과 파송의 찬송 등 예배의 회중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교회공동체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참여와 동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란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성세대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젊은 세대들은 그 결정에 따르기만 한다면, 그것은 참여가 아니라 동원이다. 교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을 위해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셋째, 영적인 하나님 중요하다.

서두에서 단절의 성경적인 근거로 바벨탑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렇다면, 소통은 과연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은 진정한 소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특징은 사도와 제자들이 외국어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출신지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바벨의 단절이 성령 안에서 소통으로 바뀌는 극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하나 되기가 어려워 보일 수 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간극이 너무 커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뮤어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진

정한 소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를 힘써 지키는 것(엡 4:3)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원-포인트(one-point) 예배와 교육의 중요성이 크다. 교회 안에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은 영적인 흐름 안에서 영적 공감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영적 하나님 됨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기성세대의 틀에 다음 세대를 맞추는 하나님 됨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관심에 기성세대들이 맞추는 하나님 됨이어야 하는 것이다. 영락교회는 비전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게 될 때는, 지금의 청년부 이하의 다음 세대들이 100주년의 주역이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하나님 됨을 이루어야, 진정한 소통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 소통이 건강이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돼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도 영적인 혈액순환이 중요하다. 영적인 혈액순환이란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와 세대 간에, 부서와 부서 간에,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영적 하나님 됨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기를 소망해 본다. **만남**

청년들의 가장 깊은 이야기

- 청년회장 황성수와 만남

2018년 3월부터,『만남』은
영락의 곳곳에서 아름다움 섬김을 이어가는
청년들을 찾아갑니다.
영락의 구석구석을 빛내주는 고마운 분들의
속 깊은 이야기!
앞으로 매달 만나게 될
소중한 얼굴들을 기대하고 기억해주세요!

청년 편집진 일동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018년도 청년회장을 맡게 된 황성수입니다. 충남 태안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대학원을 진학하면 서 서울로 오게 됐어요. 지금은 사당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통계 관련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청년회는 어떤 곳인가요?

사실 청년부와 청년회의 관계는, 대학부나 고등부 등 여타 영락교회 교육부 소속 부서의 학생회와는 다릅니다. 청년회는 영락교회 청년부와는 별도로 청년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의 자치 조직입니다.

그럼 청년부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청년부와는 독립적인 자치 조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청년부의 사역을 맡고 있고, 한 해의 계획을 구성하고 지도위원 및 교역자들과 회의도 하고 건의도 하지만, 청년부 하위 조직이 아니라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모여서 구성한 조직입니다.

듣기에는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어려운데……. 일종의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웃음).

요즘 청년들이 교회로부터 많이 멀어지고 있다고 해요. 청년회장으로서 위기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인 변화에도 이유가 있고, 영락교회의 특징에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삶, 개인주의가 좀 더 퍼져있는 세대이기도 하고, 영락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 정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전통이 있는 교회다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젊은이들이 다른 교회의 집회나 예배에서 회복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위기감보다는, 우리 영락교회에서도 청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청년부 담당 교역자 분들은 교구를 담당하시면서 젊은이예배, 그리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교역자분들께서 청년회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청년회와 교역자들의 소통에도 한계가 생기고,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함께 섬기는 교역자분들께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년부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지만 그건 어렵다고 생각하고(웃음). 저희 목사님께서 청년회는 축구 선수, 교역자들은 코치, 지도위원들은 구단이라고 하셨는데 몹시 공감했습니다(웃음). 뛰는 건 청년들이지만 교역자들이 신앙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주고, 지도위원들은 한 발짝 뒤에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한다면, 사역도 원활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섬김은 쉽지만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섬길 때는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장소 신청만 봐도 교역자들의 결재도 거치고, 교육부를 거쳐서 다시 행정처로 넘어가고, 거기서 전산 시스템으로 또 확인을 해야 하고, 그 사이에 다른 부서와 겹치면 갈등도 생기고……. 교회의 규모가 커지다보니 세상의 회사의 체계를 따온 것들이 많은데, 거



기에서 기인한 문제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라 회의와 행정의 주체이신 분들도 느끼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개선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먼저 마음을 열면, 세대 간 소통의 길도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청년회장의 입장에서, 어른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청년들과 장년층 사이의 소통이 안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만해도 초등학생과 소통하라고 하면 잘 안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오히려 어른들은 이해심이 깊은 분들이 많고, 또 소통에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청년들이 조금 더 성숙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신이 어른이길 바라고 동등한 소통을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어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예배가 살아나는 과정처럼, 청년들이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른들은 당연히 마음을 열어줄 것이고, 그렇게 서로 오해를 없애고 온전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청년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죠.

사실 영락교회 곳곳에는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묵묵히 섬기다 보면 피로가 쌓이기도 할텐데, 함께 섬기는 입장에서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사역이라는 건 쉽지 않아요. 힘들지만 그만큼의 은혜가 있는 자리죠. 회사의 일과 비교를 하자면, 회사에서는 돈이라는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교회는 돈이라는 대가가 없는 봉사와 섬김이고. 사역이 주어지는만큼 감사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찾게 되는 자리죠. 그러니, 물론 그 길이 힘들고 외로울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 크게 누리게 될 은혜를 기대하길 바랍니다. 저는 일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 봉사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섬김의 자리는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모두 각자의 고난과 힘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이 느낀 어려움과 힘들을 나누기보다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해요. 힘든 이야기보다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 더 많은 섬김을 유도해낼 수 있을 거에요. 그렇게 감사와 은혜를 찾으려면, 먼저 말씀이 바로 서야 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길, 그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안녕**



섬김을 배웠던 다시(爹視) - 고등부 겨울수련회



이유진
고등부 2학년



모두에게 선물이었던 겨울수련회

2018년 고등부 겨울수련회는 ‘다시(爹視)’라는 주제로 3박4일간 영락기도원에서 진행되었 다. 좀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 이 주제는 ‘아버지(爹:하나님)를 보라(視:회복)’는 의미이다. 주 제 말씀은 요한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였다.

올해 겨울수련회는 비전, 관계, 취업과 입시 등 삶의 여러 일들로 지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학생회 언니 오빠들, 9명의 조장들은 고등부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준비했다.

나는 이번 겨울수련회에 처음으로 조장이라는 역할로 한 조를 섬기게 되어 떨리기도 하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서 수련회 날짜가 얼른 오기를 바랐다. 수련회 준비기간 동안 ‘하나님! 조원 친구들이 부족한 저를 잘 따라주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제목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였다. 이번 수련회는 조장들이 전도사님께서 짜주신 친구들과 기도원 까지 함께 갓기 때문에, 출발부터 조장들의 역할이 시작되었다. 친구들이 한 두 명이 아니라서 어려웠지만 친구들이 잘 따라줘서 고마웠다.

기도원에 도착해서 여는 예배를 드린 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조원들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우리 조는 내가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다행이었지만 내가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 조금은 두려웠다. 몇 학년인지 물으며 서로 알아가는 첫날의 저녁시간이 되었다. 나는 호산나를 섬기면서 조장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매번 저녁집회 때마다 예배를 준비해야 해서 우리 조원들을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그런데 내가 없는 동안 학생회 오빠가 조원들을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조 친구들은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해주고 5분 정도 일찍 와서 예배준비를 해줘서 이 또한 정말 고마웠다. 많이 부족한 조장을 따라준 2조 동생들, 친구들, 언니, 오빠들 정말 고마워요!!

저녁집회 때는 나요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다. 작년 겨울수련회 때도 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 10가지를 적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중 3개는 이루 어졌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몰입할 때 열정이 드러난다.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행복함을 느끼게 되고, 몰입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 1년 동안 나는 내가 흥미 있으면서 좋아하는 것에 몰입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다. 몰입을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찾게 되고 진로에도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들을 보낸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목사님은 첫째 날엔 ‘잇다’, 둘째 날엔 ‘잇다’, 셋째 날엔 ‘잇다’라는 주제로 말씀 하셨다. 셋 다 똑같은 발음이지만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게 되는 은혜로운 말씀이었다.





마음을 여는 개회 예배



뜨거운 마음으로 드린 찬양

목사님! 올해도 감사합니다!

저녁집회가 끝나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라는 기도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며 은혜를 받았다.

수련회 둘째 날, 조별활동 시간에 조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또 있었다. ‘솔라리움’이라는 게임을 하였는데 조원들의 사이가 서먹서먹할 때 자신의 현재 상황을 표현함으로써 서로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맛있는 점심을 먹은 후 ‘야놀자!’ 시간에는 이정규 개그맨이 오셔서 재밌게 놀아주셨다. 그때 우리 조원들의 끼 발산을 볼 수 있었다.

‘영락 있는 클래스’ 때는 우리 고등부에 계신 선생님들의 직업을 강의 형식으로 설명해주셨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입시에 관심이 많았는데, 수혁 선생님 덕분에 입시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셋째 날 학생회 시간에는 언니, 오빠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준 게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나게 놀며 하나의 작은 공동체로서 따뜻한 정을 나누어서 또 좋았다. 그 후로 우리 조원들과 더 친해졌는데 셋째 날이라서 조금 아쉬웠지만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뻤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들로 감사했다.

사실 그동안 나는 교회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하는 경험을 했었지만, 수련회가 끝나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 수련회 때 기도하였던 것처럼 살아가지 못해 고민이 많았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았다. 나는 ‘이번 겨울수련회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아가자!’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했고 지금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한다. **만날**



감정의 교류, 소통의 통로

부부나 부모·자녀가 상담을 요청하면서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안 돼요.”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의도했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서로 소통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그럴 것이다’하고 상대방의 뜻을 추측으로 일관하거나,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상대방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말만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기술은 서로의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능력은 관계를 형성하고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하며 이루어지는 참된 소통의 말은 사랑, 용서, 행복감, 감사, 위로 등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 생각이나 감정이 자신에게만 머물러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원활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관계 역시 친밀한 관계로 나아 가지 못하게 됩니다. 남보다 못한 부모 자녀, 남보다 더 서먹서먹한 부부관계, 어색한 대인관계를 만들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통이 안 돼요”라고 말하는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좋은 감정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무조건적 수용과 무조건적 이해를 바탕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한 가족이 되니 ‘무조건적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30대 초반의 이 부부는 서로 함께하면 좋고 행복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업이 어려워지자 온종일 일에만 매달리면서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도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한편, 아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우울해지기 시작하여 혼자서 감당하기가 벅차고 어려웠습니다. 어린 딸을



이영미 전도사
상담부 가정·청소년 상담



일러스트 : 윤진경 기자

키우는 육아 부담으로 힘들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흔들림까지 생기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대면대면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잘 알지 않을까 생각하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신의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 다른 사람, 즉 아내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에 대한 속상함, 서운함이 폭발했습니다. 이 부부는 각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 소통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각자 자신의 문제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공감 한마디 해주지 않는 서로에 대해 서운한 마음만 커졌습니다. 특별히 감정적으로 위로받기를 더 원했던 아내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서로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즐거움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힘듦, 눈물도 함께해야 하는 관계임을 몰랐고, 함께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소통에서 원하는 것은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감정이든 힘들고 어려운 감정이든, 서로 나누면서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될 때 그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이기에 오히려 더 많이 범하는 오류가 ‘추측함’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감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알아주겠지’하고 가만히 있는 동안 우리는 가족이나 다른 공동체 가운데서 ‘이해받지 못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혼 전의 연인들이나 어린 자녀와 부모,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서로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서로의 삶에서 겪는 경험이나 생각, 느낌을 많이 이야기하고 공유합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가족이 되거나 관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에 대해 알려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고 추측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비단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나 교회 모임 속의 관계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말을 안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도 닫히고 외로운 감정만 크게 키우게 됩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와 너,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즐거움은 배가 되고 어려울 때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 괜찮아?” “잘 될 거야”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이 오가고 공감하는 말을 듣게 될 때 다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부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서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 “힘들었지? 미안해!” “괜찮아질 거야”라는 말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고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지지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특별히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 지금 이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 한마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지지는 힘든 상황의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되도록 먼저 다가갑시다. **만남**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노하 선교사(A국)



안녕하세요. 영락 성도 여러분. A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이곳 A국에 와서 사역을 하며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순간들 속에서 문득문득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A국에 와서 언어장벽과 사역현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막했던 시절에 저와 함께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미 와 있던 현지의 한 선교사님의 소개로 만나게 된 기독청년이었고, 그와 함께 언어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준비한 지 1년이 지날 즈음, 그 청년의 연약한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안타깝게도 그 청년에 대해 처음에 가졌던 신뢰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독청년이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집에서 두 청년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며 삶을 나누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선교에 대한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처음 만난 청년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가고, 새로운 친구와는 믿음의 관계를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처음 만난 청년(B)과는 자연스레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나중 합류한 청년과 함께 ‘지도자 훈련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국의 정황상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친구가 척척 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가 여기 A국에서 시작되는가 싶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난다면 그야말로 저의 계획과 의도대로 진행이 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1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B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결혼을 했지만, 빙궁하게 살아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다시 B를 찾아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자고



주일 저녁 예배드리는 모습

권했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B는 ‘지도자 훈련센터’에서 2년의 훈련과정을 열심히 마치게 되었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B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년 11월 저희는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교회를 개척했고, B는 지금까지 신학 및 신앙 훈련 과정을 현지 노회에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역을 함께 하자 기대했던 나중에 합류한 청년은 2년차가 되면서 자존감의 문제로 ‘지도자 훈련센터’에서 돌연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합류했던 이 친구가 끝까지 남아서 저와 동역자로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하며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자 훈련센터’에서는 이런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하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꿈과 비전을 손수 그려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될 때, 아버지, 형, 어머니, 언니 같은 동역자로 옆에 서 있어 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A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선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영락 성도 여러분, A국의 선교와 저희 ‘지도자 훈련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잘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영락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남**

영락 선교사역과 함께하는 영락 미디어사역



정수진 집사
서대문·은평교구

안녕하세요. 미디어선교사역을 소개합니다. 영락 미디어선교는 지난 1999년 선교부에서 해외선교 소속으로 출발하여 그해 제1회 인터넷 해외선교를 다녀옴으로 미디어사역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해외선교부 소속 미디어선교팀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11월부터는 매월 둘째 주 화요모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미디어선교사역에 마음 있는 교우들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봉사관 3층 선교부 사무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와 교제를 통해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해외선교 소속 미디어선교팀에서 선교부 소속 미디어선교모임으로 독립하였고 다시 미디어선교부로 바뀌어 본격적인 영락 미디어선교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미디어를 활용한 영상촬영, 사진촬영, 디자인 및 문서사역, 미디어기관지원, 선교대회준비 등을 통해 국내·외 교회와 선교사님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주어진 달란트로 섬기고 있습니다.



m e d i a m i s s i o n a r y s c h o o l



미디어선교부 화요모임

저희 미디어선교부의 주된 사역으로는 선교대회에 필요한 각종 선교영상제작과 사진촬영, 문서제작 등의 사역이 있으며, 1999년 제1회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인터넷 해외선교와 협력하며 참여한 이후 인터넷 해외선교에 강사 및 스텝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영락교회 교우 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미자립 교회들을 대상으로 선교지원을 함으로써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2010



미디어선교학교 V국 동영상 교육중

년까지 미디어선교학교(MMS)를 통해 국내 선교지를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와 더불어 저희 영락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에 대한 추가적인 미디어관련 집중교육의 필요성이 발견되어, 중국 동북아 지역을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2011년 제1회 MMS를 개설하고 동북아지역 파송선교사님들을 위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다른 해외선교지역으로 MMS를 확대하여 본 교회 파송 선교사님과 현지에서 양육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해외 선교사님들께 미디어 관련의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현지 제자들과 함께하는 교제도 진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선교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로, 역대 MMS 해외사역지는 2011년 동북아지역, 2012년 M국, 2013년 러시아 블라디

보스토크, 2014년 T국, 2015년 V국, 2016년 러시아 모스크바, 2017년 동북아지역 등입니다.

저희 영락 미디어선교부는 이러한 여러 사역들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님의 사역에 직접 동참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선교 역사를 경험하고 도전 받게 됩니다. 저희 미디어선교부에는 미디어 전공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다양한 달란트로 섬기며 선교 현장에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영락교우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며 저희 미디어선교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미디어선교부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봉사관 3층 선교부 사무실)

직장인예배를 전문인 선교 전략의 거점으로!



이의용 장로
국민대 교수
영락 금요 직장인예배 지휘
일산충신교회



매주 금요일 선교관에서 열리는 금요 직장인예배 찬양대

우리나라 직장인 예배의 효시 금요 직장인예배 내년에 50주년 맞는다

196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영락교회 직장인예배가 내년 9월이면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필자는 교회 앞 쌍용에서 일할 때부터 이 예배에 참석하였고, 찬양대를 조직해 지휘해온지도 어느덧 37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이 예배를 통해 많은 직장인들에게 은혜를 나눠주신 영락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영락교회는 군 선교, 학원 선교, 해외 선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다. 직장인 선교도 마찬가지다. 교회 앞에 쌍용빌딩이 들어서던 1969년에 직장인 예배를 시작했다니, 당시 영락교회가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매주 금요일 12시 10분부터 30분간 진행되는 우리 예배에는 120명에서 150명 정도가 꾸준히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제공하는 맛있는 김밥과 우유로 점심식사를 대신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다른 교회 교인이 대부분이고 비신자들도 없지 않다. 3년 전만 해도 200명 정도가 출석했는데 일터 환경의 변화, 예배 담당자의 잊은 변경 등으로 그 사이에 출석 인원이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9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된 직장인예배는 도시의 많은 교회들이 직장인 선교에 관심을 갖게 했고, 많은 교회들이 직장인 예배를 신설하는 동기를 제공했다.



‘주일을 평일같이, 평일을 주일같이’ 직장인 선교가 돌파구

그리스도인은 직업적 크리스천(Professional Christian)과 크리스천 전문가(Christian Professional)로 나눠 볼 수 있다. 직업적 크리스천은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사역자 그룹을 말하고, 크리스천 전문가는 사회의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크리스천 직업인을 말한다. 전문인 선교는 넓은 의미에서 직장인 선교라 할 수 있다.

크리스천의 신앙생활 영역은 교회, 가정, 일터(직장)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쉽게도 ‘주일 하루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사역과 가정사역이 시작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주일 하루 교회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은 주일 하루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평일에는 생업에 충실하면 된다는 ‘이중생활’의 신앙관이 깊게 형성돼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와 복음에 대한 신뢰를 줄여 전도의 문을 닫게 하고 있다.

종교개혁이 중시하는 관심사 중 하나는 ‘직업관’이다. 루터는 “일상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다”며, 성직이 아닌 일반 직업도 거룩한 직업이 될 수 있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칼뱅도 “직업 노동을 포함한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한다.”고 외쳤다. 개신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교회는 교회에 출석하는 직장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사실 상 교회 사역과 재정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는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무관심했다.

이제라도 인재와 자원을 교회 안으로 끌어 모아 교회 규모를 키우는 ‘구심력 목회’에 직업인들을 영

적으로 무장시켜 직업의 세계로 내보내는 ‘원심력 목회’를 보완해야 한다. 신자들이 영적 전쟁터인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각자의 직업을 통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나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목회 방향, 설교 방향, 교재를 다시 써야 한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직장문화는 비윤리적인 경영활동, 치열한 경쟁, 접대문화 등 오래된 관행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하기에 매우 힘든 영역이다. 일터야말로 ‘가깝지만 먼 땅 끝’이다. 우리나라 교회가 해외의 먼 ‘땅 끝’ 선교에는 많은 힘을 기울여 왔지만, 정작 가까운 ‘땅 끝’인 직장 선교에는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제라도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성도의 신앙생활 영역을 교회에서 가정과 직장으로 확장시켜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들이 ‘주일을 평일같이, 평일을 주일같이’ 살아가게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길이다.

교회내 크리스천 직장인들에게 노동의 의미, 직업 가치관, 성경적 경영관, 생활 윤리, 대인관계, 리더십 등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제시해줘야 한다. 그래서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선데이 크리스천’을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성숙시켜야 교회도, 복음도 살 수 있다. 직장 선교에 대한 관심이 좋은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본다.

직장인 선교를 위한 제안

이와 관련하여 이 기회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

첫째, 직장인 예배를 직장인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지금까지 직장인 예배가 목회나 선교의 사각 지대가 아니었는지 반성해봐야 한다. 왜 직

장인 예배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보다 활성화 된 교회의 직장인 예배나 선교를 벤치마킹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어떻게 하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존 직장 내 신자들을 예배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하면 직장 내 비신자들을 예배에 참석하게 할 것인가?”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그러자면 비신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하다.

우선, 예배 콘텐츠가 주일예배를 압축한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에 지친 직장인들이 영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음악, 영화, 강연 등 문화적 요소를 대폭 보강해야 한다. 특히 메시지(설교)가 직장인들의 높은 의식 수준, 관심사, 처한 상황 등에 맞춰져야 한다. 담임목사가 직접 설교를 담당하는 교회의 직장인예배들이 활성화하고 있음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직장인예배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인근 직장의 신우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뤄야 한다. 각 신우회를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설교자, 모임 장소, 프로그램을 지원해줘야 한다. 그리고 신우회와 연계하여 해당 직장 내 전도 전략을 세우고 지원해야 한다.

넷째, 인근 직장인들이 퇴근 후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직장인들을 초대해야 한다. 이 또한 직장인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직장신우회가 전도한 이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필자도 직장 다

닐 때 퇴근 후 영락교회의 여러 성경공부 과정에 등록하여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매우 유익했다.

다섯째, 직장선교는 교회 내 직장인들이 주도하는 것이 좋다. 목회자는 교회 안 사정에는 밝지만 직장 사회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한다. 직장인의 형편을 잘 아는 교회 내 직장인들이 앞장서야 효과가 있다. 교회 내에서 직장 선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아울러 영락교회 내 직장인들이 금요 직장인예배에 참여하여 예배를 활성화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직장선교 활동을 펴나갔으면 좋겠다.

끝으로, 이러한 선교 전략을 추진하려면 직장인 선교 전담 목회자를 세워야 한다. 예배 인도와 설교 담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직장인예배와 신우회를 연계하여 적극적인 선교전략을 펴나가는 목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도시의 교회들은 점점 더 늙어가고 있고, 인구절벽으로 인해 젊은 세대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신자의 비율도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급감하고 있다. 주변에 주거지가 없는 도시 교회들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영락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럴수록 주변의 직장사회를 지역 사회로 인식하고 획기적인 선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중부경찰서, 노랑풍선빌딩, 중부세무서, 백병원, 시티센터타워(쌍용빌딩), 자보빌딩, 남산스퀘어빌딩(극동빌딩), 파인애비뉴, 대신파이낸스센터는 새로운 교인들을 발굴하라고 주님께서 영락교회에 맡겨주신 황금 어장이다. 직장선교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을 통해 선교의 대문(大門)을 여시기 바란다. 지금이 기회다! **만남**

직장인예배 매주 금요일 12시 (선교관)

MOVIE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오후3시



3월의 영락영화

호빗 : 뜻밖의 여정

(The Hobbit: An Unexpected Journey, 2012)



감독 : 피터 잭슨

주연 : 이안 맥캘런, 마틴 프리먼

상영시간 : 1시간 20분(상), 1시간 29분(하)

등급 : 12세이상 관람가

4일

11일

호빗족 빌보 배긴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화색 마법사 간달프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는다. 오래전 난쟁이족의 영토였지만 무시무시한 용 스마우그에게 빼앗겨 지금은 황무지로 변한 동쪽의 외로운 산 애레보르 왕국을 되찾기 위해 함께 떠나자는 것이다. 외로운 산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블린 동굴에서 빌보는 골룸과 마주치고 수수께끼 대결에서 골룸의 보물 절대반지를 얻게 된다. <반지의 제왕>에 매혹되었던 관객이라면 꼭 볼만하다.



크로싱

(Crossing, 2008)

감독 : 김태균

주연 : 차인표, 신명철

상영시간 : 1시간 45분

등급 : 12세이상 관람가

18일

함경도 탄광마을에 사는 아버지 용수, 어머니 용화 그리고 열한 살 아들 준이는
넉넉하지 못한 삶이지만 함께 있어 늘 행복하다. 어느 날, 엄마가 쓰러지고 폐결
핵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 아버지 용수는 중국으로 떠났다. 간단한 감기약조차
구할 수 없는 북한의 형편 때문이었다. 엄마가 죽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준이는
무작정 아버지를 찾아 떠난다. 한국에 도착한 용수는 브로커를 통해 준이의 행
방을 알게 되고, 아들을 찾으러 나선다. 국내 탈북자 수가 3만 명을 넘긴 요즘,
이들의 삶을 다시 생각해볼 영화.



미션

(The Mission, 1986)

감독 : 롤랑 조페

주연 : 로버트 드 니로, 제레미 아이언스

상영시간 : 2시간 5분

등급 : 12세이상 관람가



25일

1750년, 남미의 오지로 선교활동을 떠난 가브리엘 신부 일행은 폭포 꼭대기에
사는 원주민 과라니족의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이들과 함께 교감하는데 성공한
다. 과라니족을 노예로 팔던 노예상 멘도자는 동생을 살해하고 죄책감에 빠진
다. 가브리엘 신부의 권유로 멘도자는 신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과라니족
마을이 포르투갈 영토로 편입되면서 토벌대가 쳐들어온다. 주님의 뜻이 과연 어
디에 있는가, 과연 악은 선을 이길 수 있는가를 묵상하게 만드는 명작.

사순절 십자가 묵상을 깊게하는 선율

사순절(Lent)은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흙으로 돌아갈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재의 수요일(올해는 2월14일)로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여섯 번의 주일을 지나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에 이를수록 나의 죄에 대한 참회와 십자가 묵상은 점차 가속이 붙습니다.

음악에서 사순절의 예전(liturgy)과 메시지들은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교회의 음악가들에게도 깊은 영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악들을 통하여 이 시기의 묵상이 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곡을 소개합니다.

미제레레(Miserere)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시 51:1)



백 정진 목사
베들레헴찬양대 지휘
마포·영등포교구

다윗의 참회시인 시편 51편은 전통교회에서 재의 수요일 예배에 선택되는 대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알레그리(Gregorio Allegri, c.1582 – 1652)의 <미제레레(Miserere)>는 이 본문을 가사로 하는 무반주 다성 합창곡입니다. 3개의 서로 다른 합창그룹이 한 절씩 번갈아 노래하여 시편 51편 전체를 부르는데 12분에서 15분가량이 걸릴 만큼 느린 진행을 보입니다. 5성부 합창의 제1그룹은 자신의 죄를 아뢰는 다윗의 심경을 대변하는 듯 어둡고 정체된 화성이며, 단선율을 노래하는 제2그룹은 심판자 앞에 허로 서는 죄인의 모습처럼 쓸쓸합니다. 공간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한 제3그룹은 극도의 기교가 필요한 복잡한 진행과 고음역대의 노래를 하는데, 시편기자 내면 깊은 곳의 소리인 마냥 울부짖는 듯 강렬하면서도 멀리서 들리는 소리인 만큼 또한 천연합니다.



예레미야애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애 1:1)



예레미야애가 역시 사순절에 익게 되는 본문입니다. 영국의 작곡가 탈리스(Thomas Tallis, 1505–1585)는 예레미야애가 1:1–5의 말씀에 곡을 붙였습니다. 소프라노 없이 알토와 남성 4성부의 저음역대의 울림이 끝없는 어두움과 깊은 슬

픔을 나타냅니다. 곡의 끝에 첨부한 후렴구, “예
루살렘아, 너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라(Ierusalem,
convertere ad Dominum Deum tuum)”의 구슬픈
외침은 400년 전의 음악임에도 지금까지도 그 애
통함을 절절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The Crucifixion)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스테이너(John Stainer, 1840–1901)의 〈십자가(The Crucifixion)〉는 겟세마네의 기도부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의 내용을 담은 오라토리오입니다. 독창자와 합창이 나레이션, 예수, 제자, 군중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과 각 장면 사이에 삽입되어 화중이 함께 부르도록 한 찬송(Hymn)

은 바흐의 수난곡의 영향이라 하겠습니다. 한 시
간가량의 이 오라토리오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
상을(God so loved the world)”은 무반주곡으로서
곡 중앙에 위치(21악장 중 제10악장)하여 주님 수
난의 이유와 의미를 잔잔하지만 명징한 어조로 전
하고 있습니다.

수난곡(Passion)

“사랑으로, 오로지 사랑으로 주께서 죽으려 하시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다룬 수많은 음악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곡이 바흐(J. S. Bach, 1685-1750)의 <수난곡(Passion)>일 것입니다. 수난곡은 본래 성금요일 예배 때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수난 이야기를 낭독하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그대로 단선율의 노래로 읊었다가, 다성음악 시대에는 합창으로 발전되었고, 바흐에 이르러서는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전에 없던 대규모의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흐 역시 이 수난곡을 성금요일 저녁예배를 위하여 작곡했고, 당시 예배전통에 따라 1, 2부로 나누어 그 사이에 설교가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바흐의 수난곡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극의 흐름을 잡아주는 합창과 성경 말씀을 노래한 후 이 말씀을 대하는 개인 내면의 반응을 노래하는 아리아, 신자들의 시각을 대변하는 코랄(chorale)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지닌 수난곡을 듣고 있노라면, 2천 년 전 겪은 세마네와 빌라도의 뜰, 골고다 언덕의 현장에 있던 제자, 성난 군중, 조용히 뒤따르던 여인이 되어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수난은 이를 수사학적으로 절묘하게 해석하는 음악을 통해 균형 잡히고도 생생하게 조명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에 대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묻는 장면 중에 갑자기 등장하는 코랄의 고백은 듣는 이의 마음을 찌릅니다.

예수님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합창) : 주여, 나는 아니지요?

코랄 : 아, 그것은 저입니다! 손과 발이 묶여 끌려가고 상하는,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바로 나의 영혼이 받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장면입니다.

빌라도 :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군중 : 바라비!

빌라도 :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군중 :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코랄 : 이 얼마나 놀라운 형벌인가! 선한 목자, 죄 없는 주께서 그의 양을 위하여 대신 죽음을 치루시다니.

이어지는 아리아는 거대한 드라마의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바흐는 베이스 악기를 제외시켜 당시 작법의 관행을 깨뜨렸습니다. 천상의 소리를 상징하는 고음역대 소리(소프라노, 플루트, 오보에)로만 채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중심에서 역설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의 노래는 듣는 이의 마음도 몇게 할 듯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으로, 오로지 사랑으로 주께서 죽으려 하시네.” **만날**

기독교미술이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포스트모던 사회이다. 모더니즘 사회가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다면 이 시대는 인간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 교회는 인간의 감성을 다루는 예술의 본질과 기능을 아직 성경적으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젊은 기독교인들이 예술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그들에게 그들의 전문분야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기독교미술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미술은 ‘시각적, 공간적 미를 표현하는 조형예술’로 정의된다. 미(美), 즉 아름다움에는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있다. 이 세계에는 아름다움과 추함이 객관적으로 있으며,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며, 그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은 역사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다. 따라서 기독교미술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재창조하는 인간 활동’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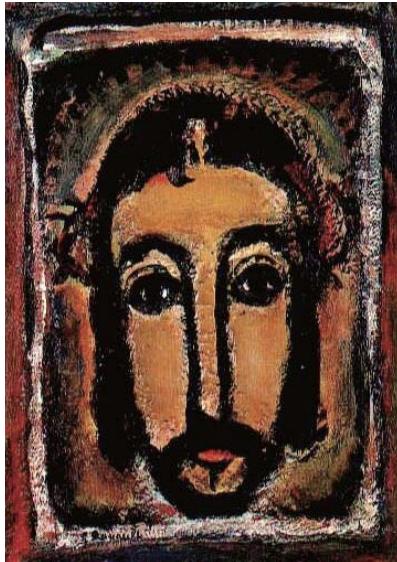
그런데 기독교미술은 기독교적 주제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또는 교회)와 세상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태도를 보인다. 세상(kosmos)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성경구절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다른 많은 성경구절은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묘사한다.

겉보기에 기독교와 무관해 보이는 일상사도 기독교적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성속(聖俗)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에 주목한다. 기독교미술은 기독교적 시각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좁은 의미의 기독교적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반드시 기독교



이경직 교수
백석대학교
신대원 조직신학



“거룩한 얼굴(La Sainte Face)”, 루오(George Rouault), 1946년경, 유화, 50x36cm, 파리, 개인소장

미술인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화폭에 담았던 유대인 샤갈은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세주로 그리기보다 수난과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의 선조로 묘사했다. 이는 소재를 성경에서 가져왔다고 해서 기독교미술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주제가 같아도 그 주제를 표현하는 형식에 따라 다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가난한 사람이나 늙은 사람의 일상사를 그린 루오는 그러한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현대인의 삶에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그리고자 했다.

기독교미술은 특정 미술형식과 필연적 관계에 있는가? 한스 로크마커에 따르면 예술의 표현방식과 열매는 예술가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무신론자 피카소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그림의 소재로 사용하지만, 주인공 예수를 매우 축소하고 주변 인물을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보다는 예수 사형을 접한 주변 인물들

의 잔혹성을 묘사하고자 한다. 미술인의 양식과 구도가 작품의 메시지와 긴밀히 연관됨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특정 양식과 특정 세계관이 필연적 관계에 있으며 기독교적 양식과 비기독교적 양식이 본질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비기독교인 두로 사람들의 미술양식도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미술양식을 무조건 배척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비기독교인이 사용하는 미술양식을 바로 가져다 써도 된다는 뜻도 아니다. 미술양식은 이론적으로 볼 때는 가치중립적이지만,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는 이미 특정 세계관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정 미술양식이 특정 세계관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면 사람들은 그 양식을 보고 특정 세계관을 떠올리기 쉽다. 기독교 미술인이 21세기에 사용되는 미술양식들을 사용하면서도 그 양식이 기독교의 고유한 메시지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교적 배경을 지닌 상징들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했다. 그 결과 양을 어깨에 멘 목자를 묘사한 그림을 볼 때 우리는 헤르메스 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올린다. 모든 미술양식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느냐 여부에 따라 기독교적 양식일 수도 있고 비기독교적 양식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기독교 미술인은 미술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겸손하게 배움으로써 미술을 통한 풍성한 삶을 되돌아보고 누리도록 도와야 한다.

동일한 양식과 주제를 지닌 미술작품이라도 작품이 제작되고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기독교적일 수도 있고 비기독교적일 수도 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 올린 놋뱀(왕하 18:4)은 인간의 죄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할 때는 유익했지만, 예배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우상이 되고 말았다.

기독교미술은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타락의 영향 아래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덕분에 선한 요소도 지닌다. 이 세계는 선한 동시에 악하다. 따라서 기독교미술은 창조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모두 주제로 삼아야 한다.

기독교미술은 창조의 아름다움을 그려냄으로써 감상자들이 참된 아름다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하며,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완전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성례적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독교 미술인은 현실세계와 삶의 명암을 잘 그려내어야 하며, 빛과 어두움을 복잡하고 미묘하게 교차시키는 편집법도 배워야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정체를 보게 함으로써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미술인은 미술을 위한 미술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부어지기 위해 깨어진 향유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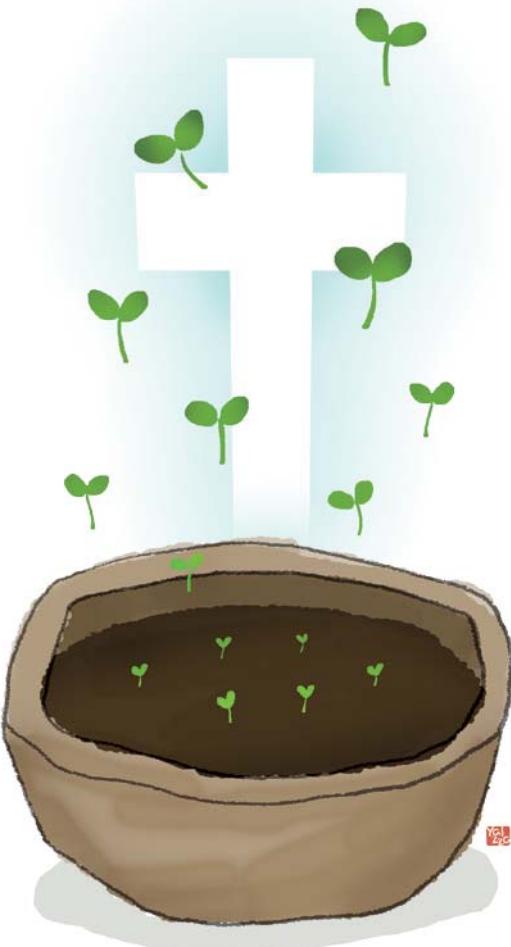
합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미술작업을 해야 한다. 동시에 그동안 미술에 무관심했던 기독교인들은 미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미술은 사치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져야 한다. 한국 교회는 미술을 통해서도 공동체와 세상을 섬겨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는 기독교 미술인들을 적극 격려하고 후원해야 한다. 기독교 미술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며, 동시에 그들이 세상에서 미술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며,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 미술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법과 양식을 계발하는데 힘쓰도록 격려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 미술인들의 작업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며, 미술을 기독교인의 소명에서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지성이나 의지로만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가슴으로 느끼고 눈으로 즐김으로써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남**

질그릇에 담긴 주님의 영광



박현옥 권사
강북·도봉교구
뉴코리아국제학교 교사
홍보출판부 선임기자



일러스트 : 윤진경 기자

삶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 탈북한 청년들, 그들이 뉴코리아국제학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뉴코리아국제학교(New Korea Global Institute)는 통일을 준비하는 기독교학교로 2011년 9월 설립되었다. 교육대상은 20~30대 자유인 청년들이며, 교육 내용은 기독교세계관과 영어 교육, 대학입시 준비 등이다. 뉴코리아국제학교는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누구나 다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발견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그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안정을 되찾아 한국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탈북 청년의 언어를 먼저 배우다

2015년 뉴코리아국제학교에 대학입시반이 생기면서 교사로 섬기게 되었다. 대학입시반 수업은 17년의 논술교사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낯설고 어려웠다. 탈북민들에 대한 대학입시전형은 다양하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고, 영어와 국어, 수학 시험을 치르는 대학도 있다.

자기소개서를 써본 적이 없는 아이들과 작문수업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장벽이었다. 모두 한국말을 하고 있건만, 몇 번씩 물어봐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도 내 말을 못 알아듣겠구나!’ 주님이 나를 깨우치셨다. 강의에 앞서 북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내가 먼저 배우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눈빛이 빛났다. 선생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던 것 같다. 학생들은 조금씩 자존감을 회복해갔다. 5명의 학생들과 열심히 공부한 결과 4명이 대학에 합격을 했다.

첫해 4명, 이듬해 8명, 올해는 10명 모두 대학 합격

한 해가 끝나갈 무렵, 나는 이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다. 순간 ‘문집을 만들자!’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문집 안의 작은 공간이 그리운 고향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 년 동안 배운 것들을 모아 「내가 살던 고향은-첫 번째 이야기-」를 발간했다. 학생들은 얼마나 좋았는지 문집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다.

2016년이 되자, 9명의 신입생이 들어왔다. 한 학생에게 학교 홈페이지지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물었다. 탈북한 고향 친구에게 들었다며, “대학에 가려면 뉴코리아국제학교에 가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첫해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도 감사했는데, 2016년에는 9명 중 8명이 합격하여 더욱 값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

2017년에는 10명이 수강신청을 했다. 첫해의 두 배나 와주었다. 기뻤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마음이 들면서 긴장이 되었다. 웬지 힘겨운 여정이 될 것 같은 예감도 스쳤다. 예상은 적중했다. 하나님을 수료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학생들이 많아 강의실 분위기가 늘 어수선했고, 예년에 비해 북한에서의 학력이 낮은 아이들도 있었다. 설상가상. 개강한 지 2주 만에 친정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 하나님은 2017년을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다.

한 발 내디딜 기운조차 없던 나는 날마다 주님께 매달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거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평안이 찾아왔다. 그때의 기대와 설렘은 고스

란히 입시 결과로 이어져 10명 전원이 대학에 합격하는 은혜를 주셨다. 복수지원이 가능한 까닭에 몇몇 학생들은 두 개, 또는 세 개 대학에 합격하기도 했다(표 참조). 모두가 기적이라 말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렸다.

뉴코리아국제학교 대학입시 현황

연도	학교명	인원	연도	학교명	인원
2015	가톨릭대학교	1	2017	경기대학교	1
	고려대학교	1		고려대학교	2
	국민대학교	2		국민대학교	3
	동국대학교	1		서강대학교	2
	이화여자대학교	1		성균관대학교	1
	계	6		연세대학교	3
2016	고려대학교	3		이화여자대학교	1
	국민대학교	2		중앙대학교	1
	동국대학교	2		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강대학교	1		한양대학교	2
	성균관대학교	1		한양사이버대학교	1
	성신여자대학교	1		홍익대학교	1
	세종대학교	1		계	19
	이화여자대학교	2			
	계	13			

각연도별인원합계는 복수 합격 포함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신 은혜



뉴코리아국제학교에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돌아보면, 믿음과 사랑으로 데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알게 하셨고, 사랑으로 주님을 깨닫게 하셨다. 온전히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평안도 주셨다. 통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을 때 비로소 거룩한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믿음으로 사랑의 길을 함께 걷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영혼들을 끝까지 지켜 주시리라 믿는다.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안남**

하나님 손에 잡힌 베드로부

1990년 1월 첫 예배를 시작으로 올해로 베드로부는 창립 29년째를 맞이합니다. 베드로부는 대입 재수 학생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수생 예배를 위한 공동체 운영을 시도하기는 하지만 번번히 명맥이 끊기는 곳이 대부분으로 우리 교회처럼 장수하고 있는 공동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락 베드로부에서는 그동안 매년 50여 명, 줄잡아 1,500여 명이 광야훈련을 거친 후 대학이나 사회로 진출하였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은 바 자리에서 기독 청년으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의 대략 25%에 해당하는 4명 중 1명은 원치 않게 재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재수하는 학생들은 주일에 어디에서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그 학생들은 소속이 없다 보니 알아서 여기 저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대예배를 드리거나 대학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집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공부를 하러 가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상당 수의 학생들은 예배를 잠시 접기까지 합니다. 지금은 베드로부에



전의혁 집사
용인·화성교구
베드로부 서기



조별 봄 소풍에 나섰다. 친구와 선배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봄 날의 따스함을 만끽하는 자그마한 여유를 누렸다.



"저는 4수를 했는데 결국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남들이 모르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 저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좋은 직장을 다니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외곬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에게 그의 나라도 맡기고 그의 사람들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을 순위 맞춰 세워서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수능성적, 내가 가는 대학 으로 자신을 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혈을 기울여 이유와 그 뜻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관심을 가지며, 절대 현재의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베드로부에 부르셨습니다. 느리지만 나와 더 만나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베드로부 학생 간증문



영락기도원에서 야외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다.



2박 3일간의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음으로 양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성도님이 많아진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재수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과연 베드로부 예배를 드리며 입시를 다시 준비하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부 예배의 존재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칫 단절될 수 있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격려해주어 대학부로 무사히 등반시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인생이 대학의 좋고 나쁨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인생에 있어서 처음 경험하는 입시 실패로 인해 세상의 모든 고뇌의 짐을 두 어깨에 짊어진 양 축 처진 모습으로 베드로부를 찾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인생 중 가장 힘든 여정이며, 재수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으로 인해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부모님이 공부를 대신해주지도 못하고, 생활 속에 들어가서 자녀들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해주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상당 부분은 그대로 흘려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부는 재수생 친구들이 이처럼 어려운 재수생활을 훨씬 활기차게 이겨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들에게 특화되어 맞춰져 있는 말씀과 예배, 담임/부담임 교사들과 같은 조 선배들의 두 겹 줄, 세 겹 줄 돌봄, 입시정보와 성공/실패 체험을 공유, 함께 재수하는 친구들과 나누는 동병상련의 애틋한 연대감… 이런 것들을 매 주일 베드로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부에 초창기부터 전해오는 표어가 있습니다. ‘합격 축복, 불합격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요? 여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본인들 스스로가 베드로부를 거치면서 많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한 선배가 베드로부 후배와 나눈 간증(좌측 간증문)으로 글을 마칩니다. **만남**

이웃과 함께… 나눔과 섬김의 실천

- 사회봉사부와 만남

사회봉사부는 우리 교회 내 여러 부서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매우 날익은 부서일 것이다. 매월 넷째 주 봉사관 앞마당에 초록색 천막을 펼치고 사회봉사주일 물품 수집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다. 올해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는 사회봉사부장 임종술 장로를 만났다.



사회봉사부의 소개와 활동 현황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사회봉사부는 현재 '이웃섬김팀', '가정복지팀', '주일봉사팀', '방과후교실팀' 등 총 4개의 팀에서 약 200여명의 봉사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 우리 교우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셨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과, 교회 밖 이웃을 위한 봉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사랑의 밥상나누기' 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밥상 나누기'는 사회봉사부에서 섬기는 여러 현장 중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 노숙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식사로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동대문 '등대교회' (매월 첫째, 둘째 수요일)와 서울역 '신생교회' (셋째 주), 서부연합 '소중한 사람들교회' (넷째 주)에서 오전 11시에 지역 노숙자들

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점심식사를 제공하며, 영등포 '광야교회 노숙자쉼터'와 대학로 '거리의 천사들' 후원으로 밤 11시에 노숙자 식사제공과 상담을 새벽 2시까지 진행합니다. 노숙자 분들께 배식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함께 모여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배식을 진행하게 되면 서울시 등 다른 단체들이 진행하는 배식과 달리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니까 기왕이면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나오시고, 그 안에서 아멘~! 외침이 있어요. 그래서 노숙자 분들께서 주님을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니까 무료 배식은 반드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보호 대상자 '겨울나기 사랑나눔' 연탄배달, 동대문, 서울역, 서부역 노숙자들 명절 선물 나누기, 성탄절, 부활절 등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부장 임종술 장로(왼쪽 위 사진)와 부원들이 사회봉사활동은 교회 안팎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많은 성도들이 올 해부터 사회봉사주일 수집품목이 달라진 이유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들의 도움으로 수집품목을 잘 활용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현옷과 신발, 중고컴퓨터와 가전제품 등은 더 이상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대가 바뀌어서 현옷이나 헌 신발에 대한 선호가 많이 떨어져, 지원받는 단체도 사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교우여러분께서는 불우이웃과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봉사금, 봉사미, 식품(통조림, 라면 등), 생활필수품(칫솔, 면도기, 양말 등)을 중심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영락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세대들의 참여는 어떤지요. 아쉽게도 우리 사회봉사부에는 젊은 청년들이 없습니다. 성단절, 부활절에 고등부, 대학부 학생들이 직접 와서 체험을 함께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은 평일에 시간을 내서 사역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고 있지요. 지난 1월 27일에는 ‘수색주민센터’ 주변에 거주하시는 어려

운 이웃을 위해 우리 교회 고등부와 대학부 소속 약 60여 명의 학생들이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를 진행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방학을 이용해서 ‘동자동 쪽방촌(모리아 교회)’에 거주하시는 2,500여 분들께 쪽방촌 문을 두드리고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외치며, 짜장면 파티를 열었는데 다들 너무나 즐거워하고 좋아하셨어요. 금년에도 날씨 좋은 날 짜장면 파티를 계획하고 있는데, 시간을 잘 조율해서 영락의 젊은 청년들이 봉사사역에 꼭 함께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락 교우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나눠야 할 기도 제목인 탈북 자유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에 지금은 많은 교우님들의 기도와 혼신이 무척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남**

최재 박진현 기자 사진 이미혜 부선임기자, 원종석 기자



김운성 목사 부임 환영식

2월 12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새로 부임하시는 김운성 목사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첫 만남이 있었다. 이 철신 목사의 안내로 김 목사가 들어서자 부목사들과 200여 명의 성도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였다. 이 목사가 김 목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한경직 목사 장학금을 받은 인재가 우리 교회에 오신 것에 대한 감사



의 말씀을 전한 뒤 김 목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 목사는 “장로교신학대학원 학생 시절에 한경직 목사님이 친히 베풀어주신 사랑을 잊을 수 없다”는 소회와 “예수께만 매인 사람으로만 살기로 다짐한다”고 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와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신양정신과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는 이 목사의 기도가 있은 후, 유명곤 은퇴장로와 제3여전도회가 꽃다발을 드렸다(사진). 이후 친교실로 옮겨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두 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성도들이 사진촬영을 하는 것으로 영락교회 역사에서 새로운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취재 정영근 부장장로 사진 박홍기 선임기자

2018 유니게학교 지도자세미나 열려



2018년 유니게학교 지도자세미나가 2월 1일 5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유니게학교 지도자세미나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라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전국에서 모인 교회지도자들과 교사들에게 유니게학교 찬양, 임산부를 위한 조이스쿨 강의를 진행했다.

제공 유니게학교 사진 원종석 기자

2018년도 제13기 영락 아버지학교 모집

목적

영락아버지학교는 아버지로 부를 받은 모든 남성들이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사명의 회복과 세움을 목표로 한다.

일시: 3.24(토) ~ 4.21(토) 14:00~18:00

[매주 토요일 5주간]

대상: 아버지 및 예비아버지 (영락교인 및 외부인)

인원: 선착순 36명

참가비: 7만원 (교재, 식사, 선물제공)

우리은행 1005-201-610374(예금주: 영락교회 상담부)

문의: 상담부(봉사관303호) 2280-0171

팀장(김은섭 집사) 010-8609-1971

프로그램: 예배, 강의, 나눔, 식사

제공 상담부 아버지학교



2018 제직수련회 이성희 목사·림형천 목사 초청



2018년 제직수련회가 1월 7일과 14일(주일) 찬양예배 시 본당에서 열렸다. 박규성 목사(목양부)의 인도로 진행된 수련회는 1차(7일)에 이성희 목사(연동교회, 사진)가 ‘광야 교회와 우리 교회(행 7:36~38)’라는 주제로, 2차(14일)는 림형천 목사(감실교회)가 ‘주님의 교회 이렇게 섬깁시다(고전 4:1~2)’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취재 박현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헌신을 다짐하는 ‘2018 여전도회 헌신예배’



지난 1월 28일(주일) 찬양예배는 2018년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렸다. 서승신 권사(제1여전도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헌신예배는 찬송 430장을 부른 후, 김희순 권사(제2여전도회장)의 기도, 정혜일 집사(제4여전도회장)의 성경봉독으로 이어졌다. 초청 강사인 조건회 목사(예능교회 담임)는 ‘이 사람이 복 받는 비결(창40:1~8)’의 제목으로 “요셉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최선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전도회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제공 여전도회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제37회 정기총회 개최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정기총회가 1월 24일(수) 오전 11시40분 선교관에서 열렸다. 110명의 회원이 참석한 총회는 1부 경건회로 이철신 위임목사가 마태복음 5:3~12절을 봉독한 후,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지키기 어렵고 힘들지만 한 목사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전했다. 2부는 회무처리로 이철신 의장이 올해부터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기념행사 중 한경직 기념상 시상을 기념사업회 단독으로 할 것 등을 알렸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신임 차재능 부이사장과 신은정 이사 신임 임원을 소개했다.

제공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바로 잡습니다

지난 529호 교회소식 56면에 게재된 ‘이희관 장로(은퇴장로회 총무)’를 ‘이희관 장로(은퇴장로회)’로, 57면에 게재된 이희철 은퇴장로 별세소식 중 ‘23일 오전 9시 본당’을 ‘1월 9일 오전 9시 본당’으로 바로 잡습니다.

사회봉사부, 월드비전 ‘긴급난방지원사업’에 2천만원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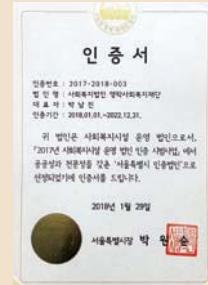


사회봉사부(부장 임종술 장로)는 겨울철 난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색동 인근 저소득층 가정을 돋기 위해 2017년 성탄헌금 중 2천만원을 월드비전의 ‘국내아동 긴급난방지원사업’ 캠페인을 통해 후원했다.

1월 27일(토) 수색동 주민센터 앞에서 월드비전에 전달식을 가진 뒤, 사회봉사부원들과 고등부, 대학부 학생 약 70여 명이 해당 가정을 방문,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가졌다. 추운 날씨였지만 그리 스도의 섬김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제공 사회봉사부 사진 원종석 기자

영락사회복지재단 서울시 인증법인 선정돼



영락사회복지재단(이사장 박남진 장로)이 서울시 인증법인으로 선정되어 1월 29일(월)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이날 수여식에는 재단 이홍노 이사와 법인사무처 5명이 참석하였다.

1941년에 신의주 제2교회를 담임하던 한경직 목사가 세운 영락사회복지재단은 고아와 독거 어르신을 돌보는 시설을 모태로 하여 1957년에 전쟁 미망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비다모자원을 설립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60년 동안 운영해온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이번 처음으로 시행된 법인 인증평가에 참가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인증법인으로 선정되었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신앙아카데미 개강일 안내

금번 신앙아카데미는 3월 25일(주일)에 개강합니다. 전년에 비해 늦은 만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강은 6월 24일입니다. 단, ‘성서지리반’은 3월 9일(금요일)에 개강합니다.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낱 말 퍼즐 정답

가로(홀수 번호) 1. 마라도 3. 초가삼간 5. 영락교회 7. 동분서주 9. 오분자기 11. 도다리 13. 상비야 15. 고레스 17. 우체부 19. 화목제 21. 성막 23. 단팥죽 25. 계산서 27. 고뿔 29. 순적
세로(짝수 번호) 2. 미당 4. 도시락 6. 삼척동자 8. 민주주의 10. 회오리 12. 분기 14. 금상첨화 16. 도약 18. 패스 20. 고부관계 22. 우후죽순 24. 개막 26. 제단뿔 28. 성서 30. 산책



2018년 신임 부목사



김 정 희

강북·도봉교구, 자원봉사부, 영락기도대,
베다니찬양대

학력

장신대 신학
장신대 신대원 신학
장신대 목회전문
예배설교학(Th.M과정중)

목회경력 동신교회 전도사/부목사(아동청소년교구, 교육목사)
천안중앙교회 부목사(교구, 행정, 사회봉사, 선교)



박 지 운

서대문·은평선교부(전도), 2남/2여, 시온찬양대

학력

중앙대 컴퓨터공학
장신대 신대원 신학
장신대 대학원 역사신학(Th.M)
장신대 목회전문 목회학(Th.D과정중)

목회경력 영은교회 전도사/부목사(교육총괄, 고등)
신촌교회 부목사(교구, 새가족, 양육, 선교)
잠실교회 부목사(교구, 행정, 양육, 군선교)



최 한 윤

관악·동작·금천교구, 북한선교부, 임마누엘찬양대

학력

장신대 기독교교육
장신대 신대원 신학
장신대 대학원 기독교문화(Th.M)



남 정 열

인천교구, IT미디어부, 갈릴리찬양대

학력

세종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
장신대 신대원 신학

목회경력 당일교회 전도사/부목사(교구, 문화학교, 전도)
금성교회 부목사(교구, 전도, 소년)
한소망교회 부목사(교구, 목회지원, 미디어)

목회경력 충신교회 전도사(초등, 아동, 운가족놀이마당)
예수소망교회 전도사(청년)
금호중앙교회 전도사/부목사(교구, 행정, 청년, 젊은부부)



김 총 섭

안양·수원교구, 소그룹, 상담부(가정사역),
갈보리찬양대

학력

영남신대 신학
장신대 신대원 신학
장신대 대학원 구약학(Th.M)



박 성 은

용인·화성교구, 선교부(문화, 의료),
3남/3여, 호산나찬양대

학력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
장신대 신대원 신학
장신대 대학원 기독교문화(Th.M과정중)

목회경력 영락교회 준전임(대학)
서문교회 부목사(청년, 장년교육)
구로동교회 부목사(교구, 행정)

목회력

3月

2일(금)	금요권찰공부 개강
4일(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찬양예배 성찬, 세례·입교식
11일(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제직회
18일(주일)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23일(금)	심방준비회
25일(주일)	종려주일, 사회봉사주일
26일(월)~31일(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0일(금)	성금요일



새가족 환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2018. 1. 1.	이성권	80	888
2018. 1. 1.	김은지	80	888
2018. 1. 14.	전미영	04	014
2018. 1. 14.	홍혜련	02	035
2018. 1. 14.	최석진	08	004
2018. 1. 14.	김희진	08	004
2018. 1. 14.	박정우	12	017
2018. 1. 14.	박예원	12	017
2018. 1. 16.	한채준	18	018
2018. 1. 16.	한채현	18	018
2018. 1. 16.	한건우	02	005
2018. 1. 21.	윤미란	17	000
2018. 1. 21.	김영훈	03	000
2018. 1. 21.	왕상원	08	034
2018. 1. 21.	김지예	08	034
2018. 1. 21.	정예준	06	036
2018. 1. 28.	김영신	07	000
2018. 1. 28.	민희종	06	047
2018. 1. 28.	박지후	10	026

등록일(2018.01.01~20.04)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등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2018. 1. 28.	유승현	13	004
2018. 1. 28.	이하준	18	023
2018. 2. 3.	김서원	17	054
2018. 2. 4.	최금자	16	000
2018. 2. 4.	이동열	17	000
2018. 2. 4.	양정순	14	000
2018. 2. 4.	정명숙	09	000
2018. 2. 4.	고성자	03	048
2018. 2. 4.	장봉년	16	000
2018. 2. 4.	최순희	06	000
2018. 2. 4.	고종순	10	000
2018. 2. 4.	송진성	06	000
2018. 2. 4.	서석원	02	068
2018. 2. 4.	송은영	02	068
2018. 2. 4.	도소영	04	020
2018. 2. 4.	서진영	18	000
2018. 2. 4.	안수린	10	000
2018. 2. 4.	이나린	02	005
2018. 2. 4.	김성연	04	053

영락역사자료

1월 사료 기증 현황

기증자	기증 일	기증 사료
한진유 은퇴장로	1/5	- 영락교회 제26~28회 장로 장립기념 사진 - 영락교회 제35~45회 장로 장립기념 사진
유숙경 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1/7	- 임영수 목사 설교 일반 음성테이프 5건
이구영 은퇴집사 (용인·화성교구)	1/28	- 박조준 목사 설교집 음성테이프 12건 - 5대목사 및 기타목사 음성테이프 38건

소중한 사료들을 기다립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문서, 설교테이프 등을 기증해 주십시오.

문의 : 역사자료실 ☎ 02)2280-0357



>> 영락화랑 : 아름다운 묵상

십자가를 안고 가시는 예수님(엘 그레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고 가시면서 몇 번이고 멈춰 서서 하늘을 쳐다보셨을 것 같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굴러 떨어질 것 같은 두 눈은 기도의 눈이다. 원망도 고통의 표현도 하지 않으신 채 굳게 다무신 입술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당신이 옳습니다….” 하시는 것 같다. 그 담담함에 오히려 마음이 미어진다. 그런 당신으로 인해 나는 나음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에서 태어난 엘 그레코는 스페인 화가로서 입체파와 표현주의의 선구자로 많은 종교화를 남겼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규칙과 비례를 중시하던 르네상스 시대 후반부였지만, 규범을 벗어나 인체를 길고 훌쭉하게 그린 것과 선명한 색, 그늘진 배경의 대조가 그의 작품의 특징이다. 예수님이 입고 계신 붉은색 옷 위의 감청색 망토는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며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 자신 십자가는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은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최진희 편집위원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위임목사 교체라는 변화와 함께 이번 3월호부터 「만남」도 새로워졌습니다. 세대간 '소통'과 각 세대내 '소통'이라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편집과 디자인의 대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2030 청년들이 편집과 취재 과정에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내용은 크게 '교육', '선교', '교제', '봉사'라는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고, 각 카테고리는 다시 2~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청소년 및 청년세대의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카테고리는 '영락지금', '너 괜찮아?' 등의 작은 섹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차세대 영락인의 다양한 활동 모습과 기독상담 등이 담깁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소재 및 간증자료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3월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공감과 소통'입니다. 끝에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영락화랑: 아름다운 묵상', '독자 의견',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등을 새롭게 담은 '야곱의 우물가' 섹션에 부활되었습니다. 디자인 곳곳에 '다양성 속의 단순함'을 담아보았습니다. 사진, 이미지 사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청년들과 디지털기자팀이 온라인 「만남클라우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콘텐츠로도 사용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 기초를 놓아보았습니다. 새로 시도하는 '사역 분야'에 아직 익숙하지 않음에도 편집위원회 모두가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분야와 협업을 이뤄냈고, 디자인 협력사 도인 및 최판곤 서기집사, 김영신 편집간사가 잘 협업을 이뤄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만남」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거룩한 공회'이신 교우분들 사이에 흐르고, 서로 은혜로이 소통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편집장 올림

>> 독자 의견

홍보출판부 여러분께, 축 성탄 2017년. 오는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해도 12월 만남까지 잘 보았습니다. 이역에서 900이 넘으니 더욱 「만남」을 기다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불초 종은 새해 92회 생일을 맞이하는데 하나님님의 보호하심으로 낮에는 차를 물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내게 소망을 주시는 홍보출판부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항상 주안에서 평안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7일 필라델피아에서 박용범 장로



▶ 독자 의견을 기다립니다. [홍보출판부 youngnak-hb@daum.net](mailto:youngnak-hb@daum.net) 02)2280-0197~8

만남

2018년 3월호
통권 530호

편집위원회

만남편집소위원회 | 편집기획팀 | 김홍범 안집, 박선이 집사(선임), 박종하 집사, 우대권 청년, 임대현 집사, 조성일 집사, 최진희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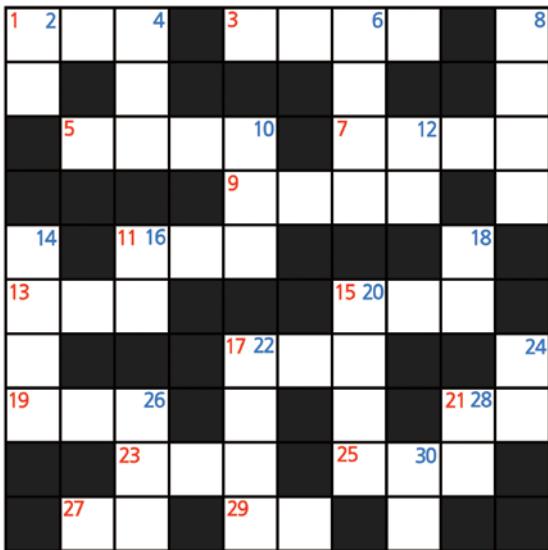
만남기자팀 | 강은진 집사, 목진경 청년, 박진현 집사, 박현옥 권사(선임), 오승현 청년, 윤진경 집사, 최윤미 집사(부선임)

만남교열팀 | 김관용 집사, 김연경 권사(선임), 박인이 집사, 이광미 권사 | 디지털편집(준비)소위원회 | 만남클라우드팀 | 김광만 집사, 류정현 집사, 목진경 청년, 박종하 집사(선임), 오승현 청년, 우대권 청년, 디지털기자팀 | 김경옥 권사, 김수연 집사, 설재훈 안집(선임), 송경희 권사, 이동훈 집사, 인미 집사(부선임), 사진기자팀 | 김한기 집사, 박홍기 집사(선임), 원종석 집사, 유승현 성도, 이미혜 권사(부선임)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낱말퍼즐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이번 달에는 낱말퍼즐을 실었습니다.



가로(홀수 번호) —————

1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섬 3 세 칸밖에 안 되는 초가라는 뜻으로, 아주 작은 집을 이르는 말 5 우리 교회 이름 7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 9 떡조개(작은 전복)의 제주 방언 11 가자미과의 바닷물고기, 가을 '전어' 봄 'OOO'라는 말이 있다 13 병원이나 가정에 늘 준비해 두는 약품 15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창건 한 사람(대하 36:22) 17 '우편집배원'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19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회생제물을 드리는 것(레 3:1) 21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거룩한 처소(출 26:1) 23 삶은 팥을 으깨고 거기에 설탕을 넣어 달게 만든 음식 25 물건 값의 청구서 27 감기를 이르는 고유어 29 사물이 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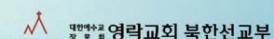
세로(짝수 번호) —————

2 집의 앞이나 뒤에 평평하게 닦아 놓은 땅 4 밥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작은 그릇 6 철이 없는 어리석은 어린 아이를 이르는 말 8 국가의 주권

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10 바람이 한곳에서 뱅뱅 돌아 깔때기 모양으로 하늘 높이 오르는 현상 12 나누어서 여럿으로 갈라짐, 또는 그 갈래 14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8 운동 경기에서 서로 공을 주고받는 수단을 이르는 말 20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22 비온 뒤에 솟아나는 죽순처럼 한때에 무성하게 생기거나 일어나는 모습 24 막을 열거나 옮린다는 뜻으로, 연극이나 음악회, 행사 따위를 시작함 26 번제단 네 모서리에 튀어나온 부분(왕상 1:50) 28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룩한 책 30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걷는 일

☞ 낱말퍼즐 정답은 56면 참조

2018년 상반기 복음통일학교



복음통일학교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통일의 때에 북한 동포들을 실제 상황에서 진정으로 섬기며 북한의 교회와 사회를 다시 세워갈 '복음통일사역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 정 3/10~4/28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장 소 50주년기념관 503호(단, 3월 10일은 604호)

교 육 과정 총 8주 (7주: 강의 + 1주: 현장체험)

대상 및 인원 본 교회 성도 50명(선착순 마감)

등 록 30,000원

외부강사진 김병로 교수(서울대) 김성우 대표(한국자유연합) 강철환 대표(북한전략센터)

김병연 교수(서울대) 송혜연 목사(하나목양교회) 김창환 박사(한국교육개발원)

등록
문의

2018년 3월 4일까지 베다니광장 홍보부스
이메일 접수 (bsmath@sen.go.kr) · 북한선교부 복음통일학교팀(02-2280-0142 / 010-4737-9060)

2018년 교역자 목회분담표

(■:목사 □:전도사 ●:파트목사 ○:준전임 전도사 ○:파트전도사)

1. 예배	• 예배위원회 : ■ 유재경 ■ 김정희(기도) ■ 이관형(젊은이) □ 성현모 □ 방명숙(기도)																																																																						
	• 음악부 : ■ 유재경 □ 이동규(한마음찬양반) ■ 이관형(젊은이) ○ 이진순																																																																						
	• 금요찬양팀 : □ 정선근 ■ 김강림 ■ 국제예배 : □ 장이삭 ○ 이형진																																																																						
2.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 ■ 백성우 □ 이사도 • 영·유아·유치부 : □ 서루디아(유치부) ○ 김한나(유아부) ○ 서예림(영아부) ○ 김현진(유치부) ○ 강하은(유아부) ○ 차인경(영아부) ○ 정다운(유아부) • 사랑부 : ● 임평호 • 아동부(CebC) : □ 이대혁(소년부) ○ 서평강(유년부) ○ 김시규(초등부) ○ 김향(소년부) ○ 최혜원(초등부) ○ 이태현(CebC) ○ 이승용(유년부) • 중등부 : ■ 임대순 □ 이성형 ○ 김영광 ○ 최정규 • 고등부 : ■ 임현우 □ 이사도 ○ 백현준 ○ 이건희 • 대학부(베드로부) : ■ 백성우 □ 정선근 □ 박상엽 ● 홍만우 ● 이종실 ○ 금교준 • 청년부 : ■ 이관형 □ 서평화 □ 손동혁 ○ 이진순 ○ 김세환 • 신앙아카데미 : ■ 차동혁 □ 강윤재 • 교회교육원 : ■ 백성우 ● 유인선 ○ 유태완 • 교사교육부 : ■ 백성우 □ 조인기 ○ 유태완 																																																																						
3. 교구·목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양부 : ■ 박규성 □ 이영옥 □ 황재영 • 새가족부 : ■ 황광용 □ 김종훈 • 친교부 : ■ 황광용 • 상담부 : ■ 차동혁 ■ 김충섭 □ 어정현 ○ 이영미 • 설악산수양관 : □ 이정훈 • 소그룹 : ■ 김충섭 □ 이동규 • 경조부 : ■ 김태균 • 평생대학 : ■ 박재현 □ 김강림 • 기도원 : ■ 이규정 • 영락수련원 : ■ 유재경 ■ 박동진 □ 신대군 																																																																						
4. 선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교부 : ■ 최승도(국내, 해외) □ 권현일 • 의료선교부 : ■ 박성은 • 북한선교부 : ■ 한현수 ■ 최한윤 □ 김학수 ○ 크리스틴 한(뉴코리아국제학교) ○ 김정화 • 학원선교 : ■ 임대순 • 1남선교회 1여전도회 : ■ 최승도 • 2남선교회 2여전도회 : ■ 박지운 • 안수집사회 : ■ 유재경 • 전도부 : ■ 박지운 □ 진영채 • 문화선교부 : ■ 박성은 □ 윤기철 • 3남선교회 3여전도회 : ■ 박성은 • 4남선교회 4여전도회 : ■ 임현우 • 권사회 : ■ 박규성 																																																																						
5. 사회	• 사회봉사부 : ■ 박재현 □ 이요셉																																																																						
6. 목회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행정 : ■ 한현수 □ 예진용 • IT미디어 : ■ 박규성 ■ 남정열 □ 김충엽 □ 심순종 •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 ■ 김응신 • 홍보출판부 : ■ 김응신 • 교회역사위원회 : ■ 김응신 • 자원봉사부 : ■ 김정희 <p>■ 교구목사(전도사)</p> <table> <tbody> <tr><td>1교구/강남</td><td>■ 박규성</td><td>□ 윤기철</td><td>10교구/종로·성북</td><td>■ 황광용</td><td>□ 황재영</td></tr> <tr><td>2교구/강동·송파</td><td>■ 백성우</td><td>□ 장윤재</td><td>11교구/노원</td><td>■ 김응신</td><td>□ 성현모</td></tr> <tr><td>3교구/성동·광진</td><td>■ 유재경</td><td>□ 예진용</td><td>12교구/강북·도봉</td><td>■ 김정희</td><td>□ 손동혁</td></tr> <tr><td>4교구/중구·용산</td><td>■ 이관형</td><td>□ 이동규</td><td>13교구/서초</td><td>■ 차동혁</td><td>□ 방명숙</td></tr> <tr><td>5교구/관악·동작·금천</td><td>■ 최한윤</td><td>□ 김종훈</td><td>14교구/인천</td><td>■ 남정열</td><td>□ 어정현</td></tr> <tr><td>6교구/강서·구로·양천</td><td>■ 김태균</td><td>□ 조인기</td><td>15교구/성남·분당</td><td>■ 임현우</td><td>□ 신대군</td></tr> <tr><td>7교구/서대문·은평</td><td>■ 박지운</td><td>□ 박상엽</td><td>16교구/고양·파주</td><td>■ 최승도</td><td>□ 이요셉</td></tr> <tr><td>8교구/동대문·중랑</td><td>■ 한현수</td><td>□ 심순종</td><td>17교구/안양·수원</td><td>■ 김충섭</td><td>□ 김강림</td></tr> <tr><td>9교구/마포·영등포</td><td>■ 박재현</td><td>□ 이영옥</td><td>18교구/용인·화성</td><td>■ 박성은</td><td>□ 진영채</td></tr> </tbody> </table> <p>■ 음악부 : ■ 유재경</p> <table> <tbody> <tr><td>임마누엘찬양대 :</td><td>■ 최한윤</td><td>호산나찬양대 :</td><td>■ 박성은</td></tr> <tr><td>시온찬양대 :</td><td>■ 박지운</td><td>갈보리찬양대 :</td><td>■ 김충섭</td></tr> <tr><td>베들레헴찬양대 :</td><td>■ 임현우</td><td>갈릴리찬양대 :</td><td>■ 남정열</td></tr> <tr><td>베다니찬양대 :</td><td>■ 김정희</td><td>교회음악아카데미 :</td><td>■ 유재경</td></tr> </tbody> </table>	1교구/강남	■ 박규성	□ 윤기철	10교구/종로·성북	■ 황광용	□ 황재영	2교구/강동·송파	■ 백성우	□ 장윤재	11교구/노원	■ 김응신	□ 성현모	3교구/성동·광진	■ 유재경	□ 예진용	12교구/강북·도봉	■ 김정희	□ 손동혁	4교구/중구·용산	■ 이관형	□ 이동규	13교구/서초	■ 차동혁	□ 방명숙	5교구/관악·동작·금천	■ 최한윤	□ 김종훈	14교구/인천	■ 남정열	□ 어정현	6교구/강서·구로·양천	■ 김태균	□ 조인기	15교구/성남·분당	■ 임현우	□ 신대군	7교구/서대문·은평	■ 박지운	□ 박상엽	16교구/고양·파주	■ 최승도	□ 이요셉	8교구/동대문·중랑	■ 한현수	□ 심순종	17교구/안양·수원	■ 김충섭	□ 김강림	9교구/마포·영등포	■ 박재현	□ 이영옥	18교구/용인·화성	■ 박성은	□ 진영채	임마누엘찬양대 :	■ 최한윤	호산나찬양대 :	■ 박성은	시온찬양대 :	■ 박지운	갈보리찬양대 :	■ 김충섭	베들레헴찬양대 :	■ 임현우	갈릴리찬양대 :	■ 남정열	베다니찬양대 :	■ 김정희	교회음악아카데미 :	■ 유재경
1교구/강남	■ 박규성	□ 윤기철	10교구/종로·성북	■ 황광용	□ 황재영																																																																		
2교구/강동·송파	■ 백성우	□ 장윤재	11교구/노원	■ 김응신	□ 성현모																																																																		
3교구/성동·광진	■ 유재경	□ 예진용	12교구/강북·도봉	■ 김정희	□ 손동혁																																																																		
4교구/중구·용산	■ 이관형	□ 이동규	13교구/서초	■ 차동혁	□ 방명숙																																																																		
5교구/관악·동작·금천	■ 최한윤	□ 김종훈	14교구/인천	■ 남정열	□ 어정현																																																																		
6교구/강서·구로·양천	■ 김태균	□ 조인기	15교구/성남·분당	■ 임현우	□ 신대군																																																																		
7교구/서대문·은평	■ 박지운	□ 박상엽	16교구/고양·파주	■ 최승도	□ 이요셉																																																																		
8교구/동대문·중랑	■ 한현수	□ 심순종	17교구/안양·수원	■ 김충섭	□ 김강림																																																																		
9교구/마포·영등포	■ 박재현	□ 이영옥	18교구/용인·화성	■ 박성은	□ 진영채																																																																		
임마누엘찬양대 :	■ 최한윤	호산나찬양대 :	■ 박성은																																																																				
시온찬양대 :	■ 박지운	갈보리찬양대 :	■ 김충섭																																																																				
베들레헴찬양대 :	■ 임현우	갈릴리찬양대 :	■ 남정열																																																																				
베다니찬양대 :	■ 김정희	교회음악아카데미 :	■ 유재경																																																																				

영락화랑

아름다운 묵상



엘 그레고 (1577, 캔버스위에 유채, 78×108cm)

십자가를 안고 가시는 예수님 (Christ Carrying the Cross)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5)”